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3929.51 (-24.11)	871.32 (-7.38)		
↓ 금리 (연 9월)	↓ 환율 (원/달러)		
2.869 (-0.003)	1465.05 (-0.25)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사상최대’ 더딘 경기회복에 빛 못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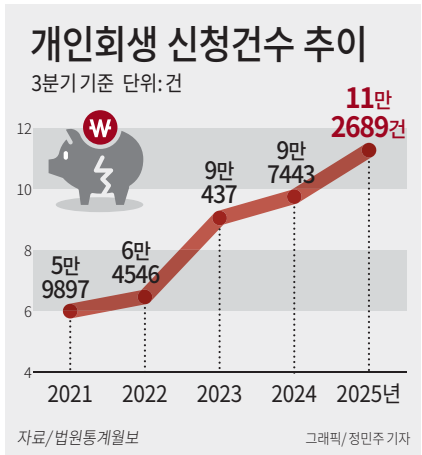
법원, 3분기 누적 15.7% 증가
코로나19 전후 6만건대의 2배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올 3분기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기에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일정기간(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1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11만268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관련기사 3면>

개인회생신청 접수는 코로나19전후로 6만건대에서 움직이다 올해 2배가량 급증했다. 9월말 기준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2019년 7만134건 ▲2020년 6만5620건 ▲2021년 5만9897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 6만4546건 ▲2023년 9만437건 ▲2024년 9만7443건으로 상승했다.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증가 요인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경기회복이 더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

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차주수는 1971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8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가계대출자 266만명은 연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그 가운데 149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소비감소로 영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말(1067조6000억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 2조원 더 불어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도 9월 기준 1조1879억원으로 현재 추이라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뉴테크놀로지 포럼’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세계 첫 5000척 선박 건조 HD현대, 51년만의 대기록

총 68개국, 700여개 선주사 대상
필리핀에 초계함 5000번째 인도

HD현대가 지난 1974년 첫 선박을 인도한 지 51년 만에 세계 최초로 5000척의 선박을 건조·인도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HD현대는 19일 울산HD현대중공업에서 선박 5000척 인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D현대가 5000번째로 인도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이다. 이 함정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28km/h), 항속거리4500해리(8330km)를 갖춘 최신에 함정으로, 지난 3월 진수돼 10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됐다. 필리핀 해군은 이미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초계함 등을 다수 도입해 운용 중이며, ‘디에고 실랑함’은 한국 조선 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

HD현대에는 지난 1974년 1호선인 26만t급 초대형 유조선(VLCC) ‘애틀랜틱 배런호’를 시작으로 이번 필리핀 초계함 ‘디에고 실랑함’까지 총 68개국 700여개 선주사에 선박을 인도했다. 조선소별로 보면 HD현대중공업에서 2631척, HD현대미포조선에서 1570척, HD현대삼호중공업에서 799척의 선박을 인

도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HD현대에는 반세기 동안 초대형 유조선(VLCC)과 컨테이너선, LNG선, PC선 등 다양한 상선뿐 아니라 군함·초계함 등 특수선 영역까지 선종을 확대해 왔다. 한국 조선업은 영국 클락슨리서치 기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HD현대 조선 3사는 세계 최대 조선 그룹으로 평가된다.

선박의 길이를 250m로 가정할 경우, 선박 5000척의 총길이는 1250km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약 1150km)보다 길며 에베레스트산(약 8800m) 높이의 140배를 웃도는 규모다.

조선업은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조선업은 매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5~7% 수준을 차지해 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5000척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전의 역사”라며 “함께 만든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 5000척,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韓-UAE, 100년 동행에 경제협력 지평 확장”

이재명 대통령, BRT 참석
양국 기업인들 참석 협력의지 다져
이재용·정의선 등 총수·관계자 참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과 UAE의 양국 기업인들과 만났다. 우리나라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해 중동 지역 기업인들과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양국 기업인 간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BRT 행사엔 양국 정부 기관 관계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원 LG전자 CEO 등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했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방산 기업인 LIG넥스원과 불닭볶음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 등도 동행했다.

<관련기사 6면>

다양한 분야의 재계 총수들이 모이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만큼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여러 분야의 양국 전략·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BRT를 통해 한국과 UAE가 100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여정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에 앞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인프라, 원전, 문화 등 분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아크부대 방문을 끝으로 2박3일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UAE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중동 국가이자, 국빈 방문지다. UAE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을 통

해 AI·방산·원전 등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AI·반도체 분야에선 양국의 전략적 수요와 강점을 결합해 공동 투자·개발·수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고, 원전 분야에선 ‘바라카 모델’을 적극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UAE를 떠난 이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에 공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도착 다음날인 20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을 갖는다. 오후에는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하고 저녁에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간담회를 한다. 카이로대학교 연설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對) 중동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 한글뉴스

▲이 대통령, 한미 협상 당시 “낭떠러지에서 뛰어 내릴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
▲공익사업으로 기존 출입 막히면…권익위 “새 진입로 마련” 판단



▲안규백, 준장 진급자 89명에 삼정검 수여…계엄버스 탑승자 등 보류
▲北 김정은, 국가보위성 등 공안기관 방문해 격려

▲與 ‘1인1표제’ 당원 투표 논란…친명 모임 “원칙 없는 혼란 해명하라”
▲美 前당국자 “北경제개발, 북미대화 당근으로 활용 가능”

셀트리온, 1.4조 투입 ‘美 관세 대응’… 국내 증설에도 4조

서정진 회장, 온라인 간담회

연내 美 뉴저지 생산공장 인수하고
5년내 6.6만 리터 규모 시설 확보

국내 송도·예산·오창 ‘핵심거점’
2038년 바이오시밀러 41개 목표
내년 ‘비만 치료제’ 전임상 돌입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6만6000리터(1) 규모의 미국 생산기지를 확보한다. 국내 생산시설 증설에도 4조원을 투입하며 성장동력을 다진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차세대 경영 전략을 직접 공유했다. 우선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목적의 미국 공장 추가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며 미국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뉴저지의 브랜치버그 지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

산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안에 인수를 마무리 짓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대 생산량 확장에 바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약에 따른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해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총 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최소 7000억원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

1차 증설로 3년에 걸쳐 1만1000리터 배양기 3기를 추가하고 2차 증설은 미국 내 제품 수요 상황을 고려해 1만1000리터 배양기 3기를 더한다. 그 결과 향후 5년 내 총 6만6000리터를 확보하게 된다.

서 회장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압박과 관세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산시설 추가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인천 송도, 충남 예산, 충북 오창을 핵심 거점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송도에서는 기존 캠퍼스내 건설중인 액산 완제의약품(DP) 공장에 더해 신규 원료의약품(DS)공장을 마련한다. 예산에서는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오창에서는 신규 사전 충전형 주사기(PFS)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시설 증설에만 약 4조원이 투입된다.

주력 성장 동력인 바이오시밀러 연구

도 계속된다. 서 회장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1개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다음 목표로 설정했다.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7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를 추가 출시해 총 18개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목표 제품은 키트루다(흑색종), 코센티스(건선), 오크레부스(다발성경화증), 다잘렉스(다발성골수종)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로 현재 상업화 타임라인에 맞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

신약개발 회사로도 약하기 위한 사업 체질 개선에도 본격 나선다. 항체·약물 접합체(ADC) 및 다중항체 신약의 경우 2025년 임상 단계에 돌입하는 4종을 포함한 총 10종 이상의 파이프라인에서 출발해 2027년에는 임상 단계 10종 이상을 포함한 총 20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제품 개발이 이뤄진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

LP-1)을 포함한 2종·3종 작용제를 넘어 4종 타겟이 동시에 작용하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은 관련 특허와 동물시험을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허가를 위한 전임상에 돌입할 것이며 최첨단으로 개발하고 있고 점차 경구 제형으로의 제형 변경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서 회장은 “올해 3분기 대비 최소 30% 이상 신장된 매출액, 30%대 중반의 매출원가율, 40% 내외 수준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개선 등 주요 실적 지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성장세를 달성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실적 성장이 매분기 지속되고 실적 성장을 기반 삼아 셀트리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신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3분기 OLED 모니터 출하량 ‘사상 최대치’

총 64.4만대로 전년비 65% 증가
타이완계 에이수스 점유율 21.9%
삼성 18% 2위 이어 MSI·LG 순서

글로벌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모니터 시장이 고성능 게이밍 수요와 IT용 OLED 투자 확대 흐름을 타고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데 이어 4분기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OLED가 하이엔드 모니터의 주력 규격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OLED 모니터 출하량은 64만4000대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전망치도 262만대로 상향 조정되며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게이밍·크리에이터용 제품 중심으로 OLED 채택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별로는 타이완계 에이수스(ASUS)가 ROG 게이밍 시리즈와 프로아트, 휴대형·폴더블 듀얼스크린 등 폭넓은 OLED 라인업을 앞세워 점유율 21.9%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18%로 2위, 타이완계 MSI와 LG전자가 뒤를



아수스 OLED 게이밍 모니터. /아수스 홈페이지

이었다.

OLED 확산 배경에는 고해상도·고주사율 수요 증가와 QD-OLED 중심의 고급 패널 공급이 맞물린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패널사들이 대면적 OLED와 IT용 OLED 라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OLED 모니터 출하에서 QD-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약 68%에서 2025년에는 약 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7인치급 모델에서 QD-OLED 침투율이 같은 기간 약 32%에서 47%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다양한 OLED 제품군을 신속하게 투입한 ASUS가 점유율 1

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제품 전략 차이도 뚜렷해지고 있다. ASUS와 MSI는 하반기 신모델 출시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제품군을 중·고가형 전반으로 넓힌 반면 삼성전자는 연초 플래그십 모델 중심으로 시장을 전개했다가 하반기 들어 신제품 출하를 늘리며 연말 시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생산거점 이전 마무리와 함께 45인치 등 신규 OLED 제품군을 본격 투입하며 3분기 출하를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업체들의 완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경쟁 및 대응 속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플래그십 중심의 OLED 모니터 전략을 유지하며 SKU(모델 수) 확장이 제한적이었으며 LG전자는 3분기 신제품 투입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분기 생산거점 이전 영향으로 전반적인 공급·출하가 둔화했다는 평가다. ASUS와 MSI가 중·고가형 OLED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린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희준 기자 nauta@

구글, 차세대 AI ‘제미나이3’ 공개

출시 첫 날 검색 서비스 전면 도입
“전례없는 수준 깊이·뇌양스 이해”

구글이 19일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을 공개하며 검색 서비스 전면 AI를 도입한다는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 제미나이3 출시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깊이와 뇌양스를 이해

하는 최첨단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구글이 신형 AI 모델을 내놓은 것은 ‘제미나이2.5’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출시 즉시 검색 서비스에 적용한 점이다. 이용자는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한 뒤 AI 모드 탭으로 이동해 제미나이3 기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구글은 핵심 매출원인 검색

광고가 잠식될 가능성을 우려해 검색 AI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번 조치는 검색 분야에서도 AI 경쟁에 정면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AI 모드는 미국 시장에 우선 적용되며 한국 도입은 이후 순차 진행될 전망이다.

구글은 제미나이3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도구 구글 안티그래비티도 함께 공개했다. 이 도구는 소프트웨어상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리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전고체전지 난제 최적화 ‘다층 설계전략’

경상국립대 성재경 교수 연구팀
실리콘 기반 병목정리 연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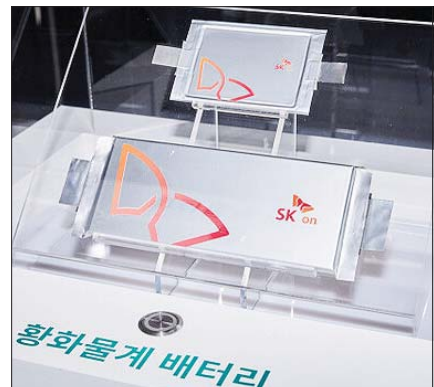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난제로 꼽혀 온 ‘계면 불안정성’을 겨냥한 연구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전극·전해질 계면을 안정화하는 새로운 설계와 소재 접근법이 속속 제시되면서 병목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성재경 교수 연구팀은 지난 17일 실리콘 기반 전고체전지의 병목을 정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리콘 음극과 황화물계 고체전해질(SE) 사이의 화학 반응, 충·방전 중 이온·전자 이동 불균형, 반복 충전 과정에서의 전극 내부 응력 축적을 고출력·고속충전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극·전해질·계면을 함께 최적화하는 ‘다층 설계 전략’을 제안했다. 실리콘 입자 크기 조절, 전해질 조성 재설계, 전하 이동 경로 균형화, 전도성 중간층·집전체 공학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계면 불안정성은 실리콘만의 문제는 아니다. 리튬금속 음극은 충·방전 과정에서 수지상(가느다란 바늘 형태로 자라나는 리튬 결정)·공극(전극 내부에 형성되는 빈 공간)이 생기며 계면 붕괴가 반복되고, 흑연·실리콘 복합 음극도 팽창으로 전극 구조가 갈라져 수명이 짧아진다. 그럼에도 전고체전지는 고체 전해질 적용으로 무게·두께가 늘어 에너지 밀도가 일부 떨어지기 때문에, 흑연만으로는 주행거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론용량이 높은 실리콘(약 3600mAh/g)과 리튬금속(약 3800mAh/g) 기반 음극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면 공학을 통한 새로운 해법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성 교수팀이 최근 공개



‘인터배터리 2025’ 현장에 전시된 SK온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SK온

한 ‘실리콘·탄소 기반 삼중 적층 중간층’은 리튬금속 전지에서 수지상과 공극 생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다. 상부층은 치밀한 리튬-실리콘 합금으로 전자 누설·계면 분해를 줄이고, 가운데층은 다공성 리튬-실리콘-탄소 나노튜브(CNT) 구조로 리튬이동 통로를 확보했다. 하부층은 CNT 비중을 높여 전류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흑연·실리콘 복합 음극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DGIST·연세대 공동 연구진은 계면 코팅이 아닌 전극 강도 자체를 높이는 방식에 주목했다. 바인더(NBR)와 용매 조합을 바꿔 실리콘 팽창에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바인더가 잘 녹는 아니솔(anisole) 용매를 활용해 전극 기계적 강성을 높인 것이다.

계면 안정화 연구가 진전되고 있으나 상용화를 막는 기술 장벽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황화물계 전해질은 공기와 습기에 취약해 별도 설비가 필요하고 고체전해질은 기공률·두께·밀도 등 제조 변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춰야 해 대량생산 난이도가 높다. 제조 공정과 스케일업 문제가 결국 상용화 시점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영끌투자·돌려막기 등 곳곳 핑크 규모에 따른 부채 양극화도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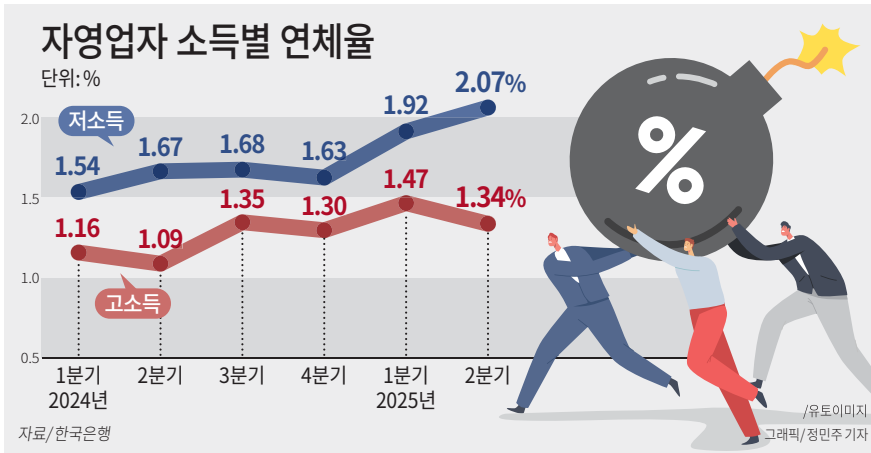
개인회생·파산 증가

매출은 줄고 이자부담은 늘어나
향후 사회적 문제로 비화 가능성
“일자리 등 구조적 지원 고민해야”

#.“가게만 굴러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죠.”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지난 2021년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와 사업자대출을 최대한으로 당겼다. 하지만 늘어나는 배달수수료와 재료비, 줄어드는 손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김씨는 현재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를 버틴다. 김씨는 “대출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갚아먹는 기분이다”라며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파산과 회생신청이 늘고 있는 배경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가게빛은 늘어나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소비둔화와 투자 감소 등 내수경기 침체도 원인이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게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상승과 교육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면서 여윔돈이 바닥난 가구가 많아졌다. 주식과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내 투자했던 20~30대 투자자들의 투자실패도 개인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액은 2분기 기준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 원 늘었다.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78%로 1년 전 같은 기간(1.50%)과 비교해 0.28%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의 대출은 사업자대출 723조3000억원(68%), 가계대출 346조3000억원(32%)으로 구성



돼 있다. 가게와 기업이 둘다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모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부채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도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분기 기준 14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분기 73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7000억 원 줄었다. 연체율도 저소득 자영업자는 1.92%→2.07%로 상승한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1.47%→1.34%로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상당수가 신용도가 낮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48조8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2조5000억 원 늘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9월 기준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3만 832건으로 1년 전(3만299건)과 비교해 533건 늘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채무자는 장기간 신용회복이 어려워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 저하로 생계 유지와 재취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족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이나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으로 늘어난 대출이 경기회복 부진으로 부담이 더욱 커지며 파산에 이르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채무자가 증가하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복지·고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채무자가 재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재교육 등 구조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증시·금·코인 등 자본시장 조정압력 뚜렷

금리인하 기대·AI고평가 논란 등 영향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흐름이 뒤집혔다.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까지 겹치면서 증시·금·코인 등 자본시장 전반에 조정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이번 조정이반도체 중심의 강세 추세를 바꾸기에는 힘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1% 하락한 3929.51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달 초 4221.87까지 치솟으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6.92% 급락했다. 증시 혼풍과 함께 ‘10만 전자’, ‘60만 닉스’를 달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거래일 동안 4.08%, 7.26%씩 떨어졌다.

미국 증시에서 AI 고평가 논란이 재점화된 것과 동시에 연준의 기준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3.22%)와 홍콩 항셍 지수(-1.72%)가 함께 떨어졌으며, 간밤 독일 DAX 지수(-1.74%), 프랑스 CAC40 지수(-1.86%)와 영국 FTSE100 지수(-1.27%)를 포함해 뉴욕

3대 지수도 연일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증시뿐만이 아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은 증시·가상자산·금 시세가 함께 오르면서 ‘에브리싱 랠리’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전날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7개월 만에 9만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시황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만116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 대비 27.8% 떨어졌다.

고공행진하던 금값도 예외는 아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0.19% 떨어진 온스당 4066.50달러에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20일 4350선까지 터치했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을 비롯한 일부 기관투자자의 엔비디아 전망 매각 결정을 계기로 AI 버블 논란이 재점화한 데 더해 미국 경기 및 노동시장의 부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라 나온 것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휘발유 평균 판매가 1800원 돌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1)당 1803.41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1

정부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 발표

지역제한경쟁 입찰 한도 ‘150억 미만’ 상향

지역업체 수주 2.6조 가량 증가 전망
담합 여부·소재지 확인 등 관리 강화

향후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 공사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88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 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한도로 늘릴 경우, 지역업체 수주 금액

이 2조6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원 이상) 낙찰자 평가 시에는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을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만점 기준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낙찰자 평가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낙찰 평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5점의 배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이같이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를 강화할 경우 지역업체의 수

주는 7000억 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8.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설경기 차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 비수도권 건설업계의 활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공사 수주 기회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도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도 속아 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업체 간 담합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역 건설업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달청과 공정위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3분기 대외채권 사상최대… 1.2조弗 육박

국내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크게 증가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이 역대 처음으로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대외채권은 2분기(1조 928억 달러) 대비 271억 달러(2.42%) 늘어난 1조119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 및 외화예치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대외채권은 올해 들어 1분기 1조513억 달러, 2분기 1조928억 달러 등 증가세를 보인다 3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외채무는 소폭 증가했다. 3분기 대외채무는 7381억 달러로 2분기말

(7356억 달러) 대비 25억 달러(0.34%) 늘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16억 달러로 54억 달러 감소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초과)는 5765억 달러로 79억 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외국인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90억 달러)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했다. 반면 정부(-32억 달러), 중앙은행(-12억 달러), 은행(-21억 달러) 부문은 감소했다.

외채 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기 22.7%에서 3분기 21.9%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차·하이브리드 R&D 확대… 미래차 주도권 정조준

산업의 최전선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와 신차 출시, 미래차 전환에 집중하며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함께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세닉 E-테크 일렉트릭(세닉)'의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경쟁력 있는 신차 라인업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르노코리아의 전략을 분석해본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르노코리아의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전경.

◆친환경·전동화로 국내서 존재감 강화

르노코리아는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 만에 2만 234대를 판매하며 내수시장에서 총 3만 9816대를 기록했다.

2023년보다 80.6% 성장한 수치다. 올해 9월까지 약 5만 4000대 가까이 판매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SM6 출시 당시 현대차 쏘나타의 판매량을 넘어섰던 인기를 연상케 하듯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올 초 3대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SUV'상을 석권했다.

그랑 콜레오스의 성공에 이어 르노코리아는 2026년 프로젝트명 오로라2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개발 및 생산까지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신차 프로젝트에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직접 생산 유발 효과 12조원, 간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원, 간접 고용 효과 9만 명 등 대규모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기반에는 르노코리아의 빠른 변화와 전폭적인 투자가 있

다. 2024년 4월에는 '르노코리아'로의 회사명 변경과 로장주(Losange)로 고도입을 진행했고, 플래그십 스토어인 르노 성수와 신규 mlt@쇼룸 콘셉트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브랜드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랑 콜레오스 흥행으로 내수 성장 세닉 국내 판매로 신차 라인업 확대 1.5조 투자로 미래차 기반 확충 사명·로고 변경으로 브랜드 새단장

특히 부산공장은 미래차와 전동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다. 르노코리아는 2024년 3월에 부산시와 부산공장의 미래차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르노코리아는 향후 3년간 부산공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을 위한 설비교체 비용으로 118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인력 2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25년 1월 전기차 양산을 위한 부산공장 설비 보강공사에 나섰으며,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까지 가능한 혼류 생산 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공장 보강공사에 하루 최대 7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 68개 설비를 업데이트했다. 또 145대의 로봇을 새롭게 도입하며 차체공장은 현재 총 887대의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물론 최신의 순수 전기차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마련하며 미래차 시대를 이룰 전략적 생산 기지로 진화한 것이다.

◆르노그룹 '5대 글로벌 전략 허브'

르노코리아의 모회사인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글로벌 전략 허브' 중 하나로 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부산공장은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의 '폴스타4'를 북미 수출용으로 생산 중이다.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최대 30만대로, 르노그룹 산하 전 세계 20여 개 자동차 공장 중 품질지표 1~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투자로 부산공장을 르노그룹 내 '미래차 생산 허브'로 육성해, 전기차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함께 한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산공장이 르노그룹의 전기차 라인업 생산 허브로 자리잡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과 고용 안전성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부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생산 확대를 넘어 부품 협력사·기술 스타트업·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목표로 한다.

부산공장 혼류체제로 전환 단행 전기차 생산능력 높여 경쟁력 확보 폴스타4 위탁생산으로 수출 강화 미래차 R&D로 기술 고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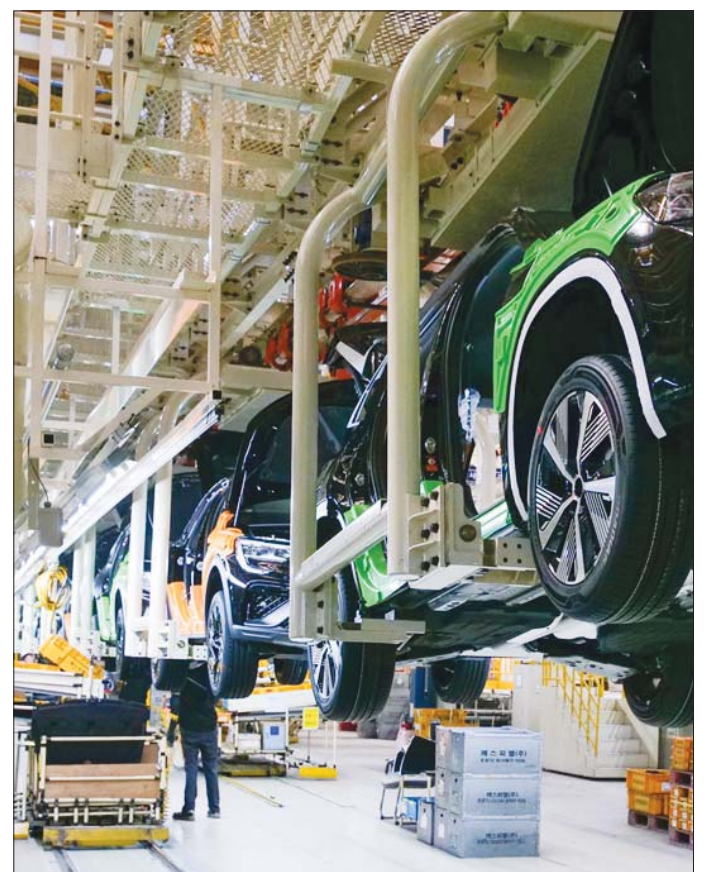
또 배터리 효율 향상 및 경량화 기술, 전동화 파워트레인 개발 등 R&D 투자도 병행해 한국형 전기차 제조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니콜라 르노 파리 한국 대표는 "한국은 르노의 미래차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기존 생산 라인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조립공장 내 새롭게 설치한 전기차 생산 대응 새시행거.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 SAMSUNG Wallet

단독적 만남

삼성 월렛에서 우리은행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
안 하면 당신만 손해니까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연 최고 금리 3.5%

(한도 2백만 원, 기본 연 0.1%, 2025.10. 15. 기준, 세전)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연 최고 금리 7.5%

(기본 연 2.5%, 2025. 10. 15. 기준, 세전)

삼성월렛 머니·포인트로 결제 시 최대 3% 포인트 적립

(기본 적립: 0.5%~1.5% 포인트, 우리은행 연결계좌로 이용 시: 1.5% 포인트, 기본 및 추가적립: 런칭 기념 한시적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 상품명: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 대상: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 금리: 최고 연 3.5% ~ 기본 연 0.1% (최대 200만원까지, 2025.10.15. 기준, 세전)
- ※ 특징: 삼성월렛채널 내 우리은행 모바일 웹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 기본금리: 연 0.1%, 우대금리: 삼성월렛머니서비스 연결 유지 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아래 기간 동안 우대금리 및 특별금리를 제공함. 가입 후 3년 초과시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음.
- ① 가입 후 1년 이내: 삼성월렛머니서비스 연결 유지 시, 연 2.4%p * 단, '25.12.31 까지 가입 시, 연1.0%p 특별금리 추가 제공
- ② 가입 후 3년 이내: 삼성월렛머니 연결 유지 시, 연 0.9%p
- 이자지급시기: 예금의 이자 계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날(월요일)에 원금에 더함.
- ※ 이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 ※ 상품명: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 ※ 대상: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 특징: 삼성월렛채널 통한 우리WON뱅킹 접속하여 가입 가능
- ※ 금액: 월 3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 가능)
- ※ 계약기간: 6개월, 12개월
- ※ 금리: 최고 연 7.5% ~ 기본 연 2.5% (2025.10.15. 기준, 세전) 기본금리: 연 2.5% /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0%p 제공

- ① 연2.0%p: 적금 신규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우리은행 본인 입출식통장을 통해 삼성월렛머니서비스 선불충전 3회 이상 (단, 월1회만 인정) ② 연1.0%p: 만기해지 시까지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보유고객 ③ 연2.0%p: 직전 6개월 간 우리은행 예금·적금·청약미보유고객
- * 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중 '전화(휴대폰)' 및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제공되며, 계약 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하며, 계좌에 압류/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합니다.
- ※ 중도해지 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합니다.
- ※ 예상 수취 이자액 다음과 같습니다.(본 자료는 예시 자료로 세부사항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30만원, 적용금리 연 7.5%(최고금리), 계약기간 12개월 가정 시 총 이자(세전) 146,250원/ 월 30만원, 적용금리 연 7.5%(최고금리), 계약기간 6개월 가정 시 총 이자(세전) 39,375원

<상품 유의사항>

-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5-05094호 (2025.10.31.~2026.12.31.)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0709 (2025.10.23.~2026.12.31.)



이벤트 바로가기

韓-UAE 공동선언문 채택

‘바라카 원전’ 글로벌 공동진출 협력

‘100년 동행 위한 새로운 도약’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원전·방산 등 8개 분야 협력
바라카 원전 노동자 만남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18일 오전 아부다비에 있는 UAE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만났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14분(한국시간 오후 4시14분)부터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 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는 데 공감하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방산이었다면서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양국 간 협력의 니즈(요구)는 서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찬장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아랍에미리트 측 노동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기업 발목 잡는 족쇄 풀어드리는 데 최선”

장동혁, 최태원 만나 규제해소 의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낡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을 찾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상의 관계자들과 기업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고성장이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제 성장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란다. 사 이즈별 규제보단 성장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원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AI와 첨단산업 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 법안, 상속세법을 중점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최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가 머리에 남아 있다”며 “성장 중심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한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치등 규제가 존재한다”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전동킥보드 등 안전 우려… PM법 제정 논의

국토교통위원회, 오늘 당정협의

시민의 근거리 이동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라스트마일(도착지까지 남은 최종 구간)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 사고와 무단 방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이 20일 만나 PM법 제정 추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민주당 국토위 위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조실장, 국토도시실장,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 이 참여하는 당정협의가 열린다고 19일 공지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산업 발전과 이동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은 15만건을 넘었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행·음주운전·승차정원 위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여야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이미 지난 9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토위는 PM법 제정 논의 외에도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우려가 있는 위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태홍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구 발전 동반자 되겠다”

민주당 대구시당 최고위원회의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소
속원사업 ‘대구·경북 신공항’ 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지역 발전과 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는 등 민심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부터 살리겠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려겠다”면서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 지원을 약속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TK에서는 민주당이 33.4%, 국민의힘 57.2%로 나타나 견고한 야당 지지세를 나타냈다. TK는 권역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민주당을 이긴 곳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를 활용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정 대표는 정부가 대구를 국내 최초 AI(인공지능)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551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AX(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숙원 중 하나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I 로봇문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

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산업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산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되어 왔다”며 “대구가 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예 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인 ‘비전AI’ 솔루션 전문기업 스피어AX를 찾아 융복합관제센터 등을 둘러보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정당의 역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피어AX는 수술실CCTV 등 AI영상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AI종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진옥동 연임수순… 내달 4일 확정

진옥동·정상혁·이선훈 등 후보 4명
해마다 사상최대 실적 기록행진
경영 연속성 등 ‘진 회장’ 연임 무게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사실상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수순이 예상된다. 내부에선 경영의 연속성과 실적호조,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지난 9월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차례에 걸쳐 심층심의를 진행한 결과 4명의 후보군을 확정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비공개 외부 후보 1명이다.

곽수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추위 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계획 및 지배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조 모범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일본동’ 진 회장 연임가능성 ↑

업계에선 진 회장이 첫 연임 도전에 나서는만큼 연임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도 사상최대 실적행

진 속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961년 2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진 회장은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뒤 오사카지점장과 일본 SBJ은행 사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신한은행장을 맡아오다 2023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

임했다.

특히 진 회장은 일본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력으로 재일교포 주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의 신한금융 지분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해마다 사상최대 실적 기록행진도 진 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진 회장은 취임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고 있다. 진 회장 취임 첫 해였던 2023년 4조 3680억원이었던 순이익은 2024년 4조 5175억원으로 3.4% 증가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순이익은 4조 4609억원으로 이미 2023년 한해 순이익을 넘어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한금융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5조 1257억원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지주 주식이 치도 급등했다. 1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2022년 말 주당 3만5200

원으로 시가총액은 22조 1588억원에 수준이었다. 지난 18일 기준 주가는 7만 6400원으로 시총이 무려 37조원에 달한다. 주가가 무려 117%나 급등한 셈이다. 기업가치를 그만큼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 12월 4일 최종후보 결정

신한금융 회추위는 오는 12월 4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후보의 성과와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 리뷰, 개인별 발표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해 최종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후보는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취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사 3분기 누적순익 11.3조, 15% 줄어

금감원, 보험회사 경영실적
손해율·계약 손실비용 상승 영향
생보사 8.3%, 손보사 19.6% 감소

올해 1~9월 보험회사들의 순이익이 1년 새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험료는 8% 이상 늘었지만 손해율 상승, 보험계약 손실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순이익이 악화되면서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이익이 크게 줄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11조 2911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 3102억원)보다 2조 191억원(15.2%)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4조 8301억원으로 8.3% 줄었고, 손보사는 6조 4610억원으로 19.6% 감소해 손보사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생보사의 경우 자산처분·평가이익 확대 등으로 투자순이익이 4508억원 늘었지만,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

순이익이 9534억원 악화되면서 전체 순이익이 뒷걸음질쳤다. 손보사도 투자순이익은 8808억원 개선됐으나, 손해율 상승 여파로 보험순이익이 2조 7478억원이나 줄어 들어 이익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보험영업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보험료는 183조 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조 1977억원(8.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9조 4170억원으로 10.7% 늘었는데, 보장성보험(12.9%), 변액보험(1.3%), 퇴직연금(46.4%) 판매가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은 2.7% 줄었다.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93조 9659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장기보험(7.0%)·일반보험(4.2%)·퇴직연금(16.9%)이 성장세를 견인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은 1.8%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올해 1~9월 기준 전체 보험사의 총 자산이익률(ROA)은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27%포인트(p) 떨어졌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6%로 1.

02%p 하락했다. 업권별로 ROA는 생보사가 0.69%(0.10%p ↓), 손보사가 2.32%(0.77%p ↓)로 나타났다. ROE는 생보사 7.56%(0.18%p ↑), 손보사 13.98%(3.28%p ↓)로 집계됐다.

재무 규모는 꾸준히 불어났다.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총자산은 1327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8조 3000억원(4.6%) 증가했다. 총부채는 1175조 9000억원으로 49조 1000억원(4.4%) 늘었다. 자기자본은 151조 3000억원으로 9조 1000억원(6.4%) 증가했다. 생보사는 자산 948조 3000억원·자기자본 88조 2000억원, 손보사는 자산 378조 9000억원·자기자본 63조 1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손해액 증가와 보험계약 손실비용 등으로 보험순이익이 악화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국내성장 ‘주춤’ 카드사, 해외선 ‘호실적’

금감원, 3분기 주요 카드사 5곳
해외법인 11곳 중 8곳서 ‘흑자’

베트남 ‘호조’ 신한, 순익 총 119억
KB국민 총 58억, 롯데 66억 기록

국내 카드사의 해외법인이 올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과거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해외법인이 카드사의 실적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5곳(신한·KB국민·우리·롯데·하나)의 해외법인 11곳 중 8곳이 3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해외법인의 3분기 총순익은 119억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트남 법인인 신한베트남 파이낸스가 85억 1500만원으로 실적을 견인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법인인 유한회사 신한파이낸스가 78억 8900만원, 인도네시아 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가 40억 5500만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다만, 미얀마 법인인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는 마이너스(-) 13억 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 해외법인은 총 58억 4200만원의 흑자를 냈다. 태국법인인



서울 한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KBJ 캐피탈이 244억 8700만원, 캄보디아 법인인 KB대한특수은행이 52억 3900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법인인 KB파이낸시아멀티파이낸스가 -238억 8400만원으로 상반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롯데카드의 베트남법인인 롯데파이낸스베트남도 3분기 순이익 66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58억 4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우리카드는 1~3분기 해외법인 누적 순익 28억 9900만원을 냈다. 인도네시아 법인인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가 3분기 누적 순익 54억 7900만원을 기록했으나, 미얀마 해외법인인 투투파이낸스가 -25억 8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가족 5명은 돼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당첨

청약 최고가점 82점 84㎡A서 나와
최저점 75점… 평균점수는 78.4점

수 십 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이 최소 5인 가족 이상은 되어야 당첨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최고 가점은 82점이다.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신축 현장. /안상미 기자

(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자의 청약가

점 최저점은 70점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워도 4인 가족으로는 당첨권에 들기 힘들었던 셈이다.

타입별로는 84㎡A가 최저점이 75점으로 당첨자 평균 점수가 78.4에 달했다. 59㎡A, 59㎡B는 모두 최고점이 5인 가족 만점인 79점이며, 당첨자 평균 가점은 74점 안팎이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동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506세대다.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 3100만원, 84㎡ 27억 4900만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 도모

우리은행은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영업점에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영업점 대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당국의 고령층 및 디지털 비이용 고객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취지에 맞춰 모바일과 인터넷 채널에서만 제공되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영업점 창구

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뱅킹 대면 서비스 오픈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이 익숙치 않은 고객도 보유한 타 은행 계좌를 영업점 창구에서 등록 및 출금계좌로 지정해 잔액조회, 자금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기능을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G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출시 한국형 자율주행 기술경쟁 드라이브

국내 최초 ‘슈퍼크루즈’ 도입 모델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739km 인종
“소비자에 새로운 경험 제공할 것”

제너럴모터스(GM)의 최첨단 기술을 품은 캐딜락 플래그십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가 국내에 공식 출시,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 차량은 국내 최초로 핸즈프리 자율주행 기능인 ‘슈퍼크루즈’를 도입하며 테슬라, 현대차 등과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드라이브를 건다.

윤명옥 한국GM 최고마케팅책임자(CMO)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전무)은 19일 서울 강남구 엔헤이브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에스컬레이드 IQ는 에스컬레이드가 쌓아온 헤리티지를 전동화 시대에 맞춰 확장한 캐딜락의 핵심 모델로, 국내 최초의 풀사이즈 전기 SUV를 통해 브랜드가 지향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에스컬레이드 IQ와 비교할 수 있는 경쟁 모델은 없다”고 자신했다.

에스컬레이드 IQ는 GM의 최신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울티엄 셀즈(Ultium Cells LLC)에서 생산한 205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최장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739km(복합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기준, 도심 776km, 고속 692km)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존로스 글로벌 캐딜락 부사장은 “실제 주행거리는 인증받은 것보다 뛰어날 것”이라며 “주행거리는 900km 이상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GM 전기차 아키텍처 기반 205kWh 울티엄 배터리는 800V 초급속 충전을 지원해 10분 충전 시 최대 188km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와 조합된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은 750마력과 108.5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과 에어 서스펜션이 정교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에스컬레이드 IQ에는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슈퍼크루즈’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현

재 국내 약 2만3000km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Eyes On)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또 교통 흐름을 감지해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한다.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채명신 한국GM 디지털 비즈니스 총괄(상무)은 “슈퍼크루즈는 2017년 업계 최초로 적용된 핸즈프리 시스템으로 8억7700만km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동했다”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AI-EDGE그룹, 방산 등 전략적 협력

미래 전략사업 전반 협력 가능성 탐색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UAE 정부가 국영·민간 방산기업 25개사를 통합해 설립한 방산 연합체인 EDGE 그룹 산하인 플랫폼앤시스템즈(Platforms and Systems)와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괄적 협약은 양사가 각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사업 전반에서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동 마케팅과 제품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추진됐다.

KAI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중·지상·해상 플랫폼과 관련된 핵심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하는 플랫폼앤시스템즈를 러스터와 상호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생산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DGE 그룹은 UAE 정부가 설립한 첨단 방산·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국영 방산 기업으로, 무인기, 유도무기, 사이버·전자전, 해양·지상시스템 등 미래 기술 중심의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



차재병 대표(왼쪽)가 하마드 알 마라 EDGE 그룹 총괄사장과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

하고 있다. 현재 35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 연 매출 50억 달러, 직원 1만 7000명 규모로 중동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방기술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국제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국 항공우주 산업이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사 간 기술·산업 생태계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미래 항공우주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HS효성첨단소재, K-방산 섬유 브랜드 소개

밀리폴 파리 2025

알렉스 기반 방탄, 방검 솔루션 제시

HS효성첨단소재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서 K-방산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렉스(AL KEX)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1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160개국 3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미주 등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렉스를 알리고 우수한 방탄, 방검

솔루션을 제시해 글로벌 시장 내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협력사인 경강산업의 아라미드 방탄헬멧과 방탄복의 해외 홍보도 함께 지원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경강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전반을 후원해 글로벌 판로 확대를 도우며 ‘가치, 또 가치’라는 그룹 슬로건 아래, 국내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알렉스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군·경 방탄장비에 활용돼 우수한 품질로 고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HS효성첨단소재는 알렉스를 앞세워 K-방산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효성그룹, 배인한 부사장 등 29명 임원인사

배용배·박남용 부사장 선임
‘30대·여성’ 미래 성장 방점

효성그룹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달성하거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임원 인사를 했다.

효성은 배인한 동나이법인장, 배용배 중국 남통법인장, 박남용 효성중공업 건설PU장 등 부사장 3명과 신규 임원 13명을 포함한 29명 규모의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인한 부사장(사진)은 1989년 효성 기술원에 입사해 스파텍스 개발 및 생산에 참여했다. 이후 베트남·중국·인도 등 글로벌 사업 확대를 리드하며 스파텍스가 글로벌 1위 제품으로 올라서는 데 기



여했다. 2023년부터 동나이법인장으로 효성티앤씨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배용배 부사장은 1993년 효성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초고압변압기 설계 및 생산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기술 전문가다. 2022년 국내영업 총괄(전무)을 거쳐 2023년부터 중국 남통법인장을 맡아 효성중공업 전력부문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끌고 있다.

박남용 부사장은 1990년 효성건설 입사 후 현장 시공과 영업·마케팅을 두루 경험한 건설 분야 전문가다. 2022년부터 효성중공업 건설PU장을 맡아 건설부문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효성은 이번 인사에서 젊은 인재와

여성 인재를 각각 전진 배치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시드니지사장은 30대 임원으로 지난 2024년 PL(부장급)으로 조기 승진한 지 1년만에 신규 임원으로 발탁됐다. 전 상무는 효성중공업의 호주 등 오세아니아 신규 전력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해왔다.

여성 신규 임원으로 발탁된 김수정 상무는 지난 2011년 효성티앤에스에 입사한 이후, 제품기획, 글로벌 마케팅 업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지난 2021년부터 해외영업본부 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다. 안정희 상무는 지난 2016년 효성티앤씨에 입사한 이후, 철강1PU 후판팀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철강 무역 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견인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시카고에 ‘SKS 쇼룸’ 오픈

북미 시장 소비자 접점 확대

LG전자가 미국 시카고 ‘더 마트(The Mart)’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 쇼룸을 신규 오픈하며 북미 시장에서의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시카고의 디자인·건축 전문 상업 공간 ‘더 마트’에 SK

S 신규 쇼룸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쇼룸은 미국 내 파벨리, 뉴저지에 이어 중부 지역에 구축한 세 번째 거점으로,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더 마트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B2B·B2C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신규 쇼룸은 총 806㎡ 규모로 세계적인 건축가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

가 설계를 맡았다. 라운지와 전시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구조에 이탈리아 명품 가구·소재 브랜드와 협업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했다. 내부에는 다섯 개의 주방 공간을 포함해 ▲가스·인덕션·수비드 기능을 통합한 ‘프로레인지’ ▲메탈릭 디자인과 다기능 서랍을 갖춘 ‘빌트인 프렌치도어 냉장고’ ▲내부 카메라 기반 식재료 분석·레시피 추천 기능을 탑재한 ‘월요브’ 등 핵심 제품들이 전시된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전자, ‘스타 오브 더 시즈’ 제품 공급

TV·스마트 사이니지 6000대 설치

삼성전자는 글로벌 해운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스타 오브 더 시즈’ 내 2805개의 객실과 라운지 등 선내 시설에 TV와 스마트 사이니지 약 6000여 대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미국 플로리다 포트 캐너버럴에서 신규 취항한 ‘스타 오브 더 시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크루즈선으로 무게는 25만800톤, 길이는 약 365미터에 달하며 ‘타이타닉’호 보다 약 5배 더 크다.

객실과 승무원실 등에 공급된 TV는 상업용 ‘크리스탈 UHD(HBU8000)’ 모델로, 10억 개의 컬러를 표현하는 압도적 선명함으로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스타 오브 더 시즈’ 크루즈선에 설치된 삼성전자 TV와 사이니지.

/삼성전자

을 제공한다.

또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선내 주요 시설에는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사이니지가 설치돼 여행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차현정 기자

스타트업, 모태펀드 예산축소 우려… 절반은 해외진출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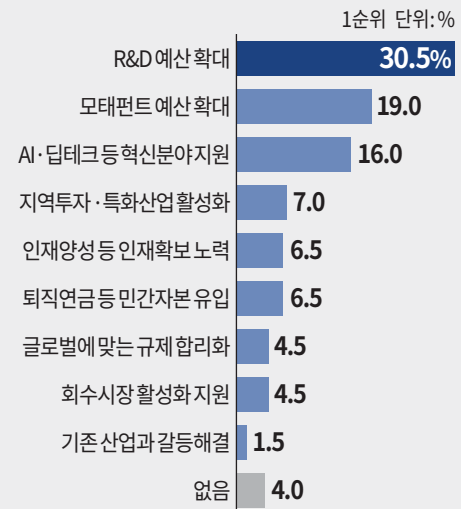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발표

정책 기대 1순위는 R&D 확대
모태펀드 예산확대 요구 급증
해외사업 54.5% 동남아·美·日
가장 알고픈 기업 ‘토스’ 압도 1위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연구 개발(R&D) 예산 및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는 토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내용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와오픈서베이가창업자(200명), 스타트업 재직자(200명), 대기업 재직자(200명), 취업준비생 200명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9일 내놓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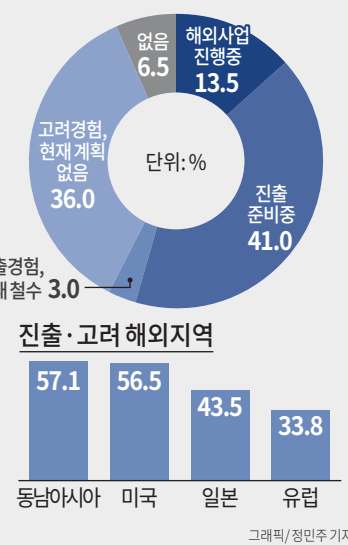
스타트업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



자료/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리포트에 따르면 ‘사업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 1순위로는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30.5%)와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 기간 연장’(19%), ‘AI·딥테크 등 혁신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계획과 원하는 지역



분야 집중 지원’(16%)을 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벤처캐피탈(VC) 업계도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학균 VC협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겉으로는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신산업 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를 포함한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모태펀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을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부정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창업자의 64.5%, 스타트업 재직자의 54.5%가 ‘긍정’을 전망한 반면 ‘부정’은 각각 12.5%(창업자), 6.5%(재직자)에 그쳤다. 정부에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지원으로는 ▲투자활성화(기술 등)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 투자 지양 등을 꼽았다.

스타트업의 41%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13.5%는 실제로 해외시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54.5%

가 실제 진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원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57.1%), 미국(56.5%), 일본(43.5%) 순이었다.

다만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확보’(57.1%)와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48.7%), ‘현지 시장 정보 및 법률·정책 파악’(42.2%)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는 토스가 모든 설문 대상자에서 고르게 1위에 올랐다. 이외에 당근, 쿠팡, 뽀빠이, 푸리오사도 많이 꼽혔다.

창업자들이 바라보는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1~3순위 합계)으로는 네이버가 46.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외에 카카오(34%), 삼성(29%), SK(25.5%), 현대자동차(17.0%)가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지역 中企 AX 불균형, 지자체 협력 핵심”

중기부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 스마트제조혁신 3.0 컨퍼런스 진행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AX 불균형 해소와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중기부도 AX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기업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도입 및 안착,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리로, 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컨퍼런스 그리고 AX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제조혁신 유공표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스케일업팀스 운영사 및 AI 공급·수요 기업 간담회, AI 공급기업 IR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졌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중기부에서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2차 추경을 통

해 3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신규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기획한 AX 활용·확산 사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지난 10월 지자체 5곳을 선정할 바 있다.

비전선포식에선 경남이 ‘제조 특화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인 기계, 항공, 에너지 등에 AI를 융합해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길 원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에서 치열한 예선전과 본선을 통해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X 우수사례와 스마트제조 구축 우수사례에 대해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천원엔지니어링 조환수 대표는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를 위한 AI 비전검사 및 AI 설비 예지 보전을 통해 불량률 42.3% 감소와 생산성 20.8%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승호 기자

차세대 전동화·모듈 혁신기술 50종 선별

현대모비스 ‘테크 브릿지’ 개최

현대모비스가 올해 개발한 모빌리티 신기술 50개를 고객사와 협력사에 공개했다. 전동화와 모듈사업 부문에서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선정했고, 앞으로 이들을 융합한 통합 설계기술도 지속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경기 의왕 소재 전동화연구소에서 ‘테크 브릿지 2025’를 개최해 완성차 고객사와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기술 50개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테크 브릿지는 ‘기술을 잇고 주행을 만나다’를 주제로 전동화와 모듈 부문을 통합해 전시했다. 그동안 부문별로 운영했던 전시회를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대형 부품인 모듈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

동화 부문 간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모비스는 배터리와 구동 부품 등 전동화 분야에서 28개, 새시모듈과 운전석(각핏)·실내 조명·외장 등 모듈 부문에서 총 22개의 신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현대모비스 전동화 부문의 우수연구개발 사례로는 도심형 소형 전기차에 특화된 120kW급 소형 PE(Power Electric)시스템이 소개됐다.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구동시스템으로, 더 많은 적재가 가능하도록 부품의 높이를 낮춘 저장형 구조로 설계됐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PE 시스템 개발로 중형·대형에 이어 소형까지 전기차 전 차종을 아우르는 구동시스템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

中企 86% “정년연장보다 선별재고용 선호”

중기중앙회, 304개사 의견조사

중소기업 대부분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자 가운데 선별해 재고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법정 정년 연장’을 희망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직무 및 성과 등에 따라 고용 연장 여부를 정하는 선별재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임금 조정, 고용 종료 시점 결정 등이 자유롭다. 기업의 41.4%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부담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산업안전·건강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

무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67.8%)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기업의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전원 고용 연장을 하고 있는 곳은 20.9%였다. 고용 기간 연장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선 75.7%의 기업이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중이었다. 정년 시점보다 감액은 23.3%였고 증액은 1.0%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이 필요한 직무는 생산기능직(47.7%)이 1위를 차지했다. 일반사무직(21.4%), 연구개발직(20.7%), 서비스판매직(5.9%) 순이었다.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고용지원금(88.5%), 조세 지원(85.2%) 등이 거론됐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으로 산업전환기 中企 성장 견인

3년간 1861곳 대상 전환 컨설팅 참여사 평균 매출 6.8% 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구조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전환기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중진공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구조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새로 도입한 ‘구조혁신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드맵 수립부터 정책자금·R&D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도입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등 구조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1861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 1년 후 평균 매출액은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4년 10월 발표)에 따른 국내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 2.8%보다 약 4.0%p 높은 수치로, 구조혁신지원사업이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기업 백역전자는 중진공의 사업전환 컨설팅을 통해 매출은 163.3%, 종업원 수는 23.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여경두 백역전자 대표는 “기존 LED에서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로 사업구조

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중진공의 사업전환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사업모델 고도화, 설비투자 계획 수립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 3년간 구조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매출 등 성장성 부문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AI·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혁신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피지컬AI, 범용인공지능 교두보… “연구환경 조성 집중해야”



인터뷰

이 해 민 조국혁신당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전 세계를 휩쓴 지 불과 1년 남짓한 지금, 기술의 최전선은 ‘피지컬(Physical)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만들어내던 AI가 이제 로봇의 몸을 입고 물리적 현실로 걸어 나오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하며 ‘AI 3강’ 도약을 국정과제로 못 박았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동시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골든타임 한복판에서, 국회에서 누구보다 앞서 피지컬 AI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구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출신인 이해민 의원은 국회 내에서도 드문 ‘IT 전문가’다. 그는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를 “한국이 추격 불가능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정의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민 의원을 만나 피지컬 AI의 의미와 앞으로 국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기존 생성형 AI와 ‘신체성’ 차이는·몸 가지고 직접 판단·행동 대표 사례에 로봇·자율주행차 등 韓 승부처, ‘제조업 데이터’ 꼽아 제조·물류 혁신으로 AI 강국될 것 AI 기본법으로 안전성 기준 세워

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먼저 피지컬 AI의 개념 정의를 물었다. 이 의원은 기존 생성형 AI와의 차이점을 ‘신체성(Embodiment)’에서

찾았다.

“지금까지의 AI가 챗GPT처럼 모니터 속 가상환경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센서와 카메라라는 ‘눈’과 로봇이라는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3D 공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죠.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설비가 대표적입니다.”

이해민 의원은 피지컬 AI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술발전의 필연적 단계라고 설명했다. 텍스트 학습 위주의 거대언어모델(LLM)만으로는 AI의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현실 데이터를 직접

습득하며 성장하는 피지컬 AI가 범용인공지능(AGI)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육성 전략에 대해 이 의원은 ‘인프라’와 ‘데이터’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한 6조 원 투입’ 계획에 대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이 예산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가상과 현실의 오차를 줄이는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에 골고루 쓰여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의 승부처로 ‘제조업 데이터’를 꼽았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을 보유한 한국이야말로 피지컬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젠스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고성능 GPU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한 배경에도 한국의 양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 데이터를 잘 케어한다면 한국은 제조와 물류 혁신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AI 강국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우려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AI가 탑재된 로봇이 오작동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의원은 내년 초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이 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이 알고리즘인지, 센서인지, 아니면 사용자 조작 미숙인지 밝혀내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기본법에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그리고 ‘영향받는 자’라는 4가지 주체별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인터뷰 말미, 이 의원은 기술 낙관론 뒤에 가려진 ‘일자리 문제’를 무겁게 꺼내 들었다. 그는 최근 아마존의 대규모 감원 사태를 언급하며, 기술 혁신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에서 기술은 효율을 쫓지만, 세상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노동 시간 단축, 그리고 흔히 ‘로봇세’라 불리는 부의 재분배 정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입법부가 제동 장치이자 방향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엔씨소프트, 韓·대만에 ‘아이온 2’ 선포

초기 시장평가, 안정적 운영 등 호평 출시 직후 주가 급락… 단기조정 분석 유저 대기 수요 흡수 가능성 주목

엔씨소프트가 19일 0시 아이온2의 한국·대만 서비스를 시작하자 게임성과 운영 안정성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다만, 투자자들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아이온2는 원작의 천족·마족 대립구도와 8개 클래스 구조를 계승해 고퀄리티 그래픽, 후판정 전투, 수동 조작, 세밀한 커스터마이징 등을 강화한 신규 MMORPG다.

초기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다. 엔씨소프트가 예고한 ‘착한 BM’ 기조를 지켰다는 점, 별도 프로모션 없이도 스트리머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방송을 늘리고 있다는 점, 접속 폭주에도 서버 중단 없이 운영을 이어간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백승욱 엔씨소프트 아이온2 총괄프로듀서가 지스타2025에서 아이온2를 소개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실제로 치지직에서는 관련 방송 채널이 420개를 넘기며 상위 인기 카테고리 올랐고, 주요 인플루언서들은 1서버에 모여 천족·마족으로 나뉘어 경쟁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반면 주가는 출시 직후 급락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9

만3200원으로 전일 대비 13.94% 하락했다. 장 초반 18만7900원까지 밀렸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락폭이 크다. 시장은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내년 매출 전망 2조~2조5000억원이 아이온2 흥행에 달렸다고 본다. 이는 아이온2가 연 3000억원, 일 8억원 수준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는 ‘재료 소멸’에 따른 단기 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는 게임성 자체는 완성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며 운영을 통해 트래픽·매출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호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MORPG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역성장을 반복했지만 신작 출시와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작 부족으로 쌓여온 유저 대기 수요를 아이온2가 흡수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 AI로 개인화 마케팅 업무 처리

CDP 에이전틱 AI ‘클레어보’ 자율적 판단·실행 기능 더해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인 LG CNS는 마케팅 업무를 할 때 AI에게 자연어로 간단히 지시를 입력하면 에이전틱 AI가 고객 데이터 분석부터 타깃 그룹 생성, 캠페인 활성화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CDP(고객 데이터 플랫폼) 에이전틱 AI 서비스 ‘클레어보’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CDP는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통합·분석해 개인화마케팅에 활용하는 플랫폼이다. LG CNS는 기존 CDP에 에이전틱 AI를 결합해 자율적인 판단과 실행 기능을 더했다. 고객 데이터 분석, 타깃 그룹 생성, 캠페인 활성화를 포함한 CDP의 주요 기능을 AI 에이

전트로 전환하고, 에이전틱 AI가 통합 지휘자 역할을 맡아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토록 한다.

사용자는 마케팅 업무를 위해 여러 작업 화면을 이동할 필요없이, AI와 대화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이번 제품은 어떤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을까?”라고 입력하면, 에이전틱 AI가 제품 구매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타깃 그룹을 추천하고, 고객의 최근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전략을 제안한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활발한 고객에게는 앱 푸시를, 카카오톡을 통한 구매 전환이 많은 고객에게는 카카오톡 알림 기반의 캠페인을 설계하는 식이다. /김현정 기자 hjk1@

네이버 지도·길찾기, SME 사업자에 기여

KAIST-서울과기대 연구팀 실증연구

네이버의 지도와 길찾기 서비스가 ‘네이버플레이스’를 이용하는 SME 사업자에게 가장 높은 사업 기여도와 플랫폼 고유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AIST 경영공학부 안재현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용길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네이버플레이스가 소상공인의 핵심 경영 활동인 고객 확보와 매출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플레이스·광고를 사용하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또는 연 광고비 100만원 이하 사업자 3257명을 대상으로 특정 기능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상의 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플레이스 이용 사업자는 지도·길찾기 기능을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했고,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가격 비교와 간편결제를 가장 필수적인 기능으로 꼽았다. /최빛나 기자

SKT, ‘파운데이션 모델 테크 워크숍’ 성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소개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정예팀이 대학생·AI 연구자들과 함께한 ‘2025 파운데이션 모델 테크 워크숍’을 성수동 ‘위룸’에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SKT 정예팀이 독자와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방향을 소개하고, 국내 AI 연구자 및 산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SKT, 크래프톤, 포티투닷(42dot), 리벨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 서울대, KAIST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와 응용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대규모 모델 학습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선행 연구(서울대·KAIST) 등이 다뤄졌다.

SKT는 국내에서 드물게 500B(5000억 개) 파라미터급 초대형 모델 개발에 도전하는 배경과 연구 방향을 설명했고, 서울대와 KAIST는 멀티모달 오디오 생성 및 언어모델 확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과 크래프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연구 성과와 협업 경험을 공유하며 국내 AI 생태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금융위, IMA 재가동·발행어음 확대… ‘생산금융’ 힘 신는다

‘미래에셋·한투증권’ 종투사 의결
연내 신규 IMA 출시 가능성 높아
형태·위험 수준 등 핵심쟁점 모호

국내 자본시장이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인가와 발행어음 인가 확대를 통해 ‘생산금융’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을 8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키움증권을 4조원 종투사 겸 단기금융업 인가 사업자로 최종 의결하며 IMA·발행어음 시장을 동시에 재가동했다. 모험자본 공급의무 도입, A등급 채권 실적 인정 상한 설정, 코스닥 리서치 강화 등 생태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정됐지만, IMA의 상품 구조·위험등급·제재 기준과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금액의 25%가 아니라, 금융위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 대비 25%에 상응하는 규모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리스크’ 발생 우려에 대해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는 “조달액 기준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어음의 단기성·모험자본의 장기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무 기준은 여전히 원칙 수준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금융위가 제시한 ‘상응하는 규모’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 기준으로 충족하는 구조”라는 설명만 반복했다. 모험자본 범위는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금, 국민성장펀드, BDC 등으로 확대됐지만, 구체적인 위험관리 기준이

나 자산 구성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모험자본 실적 인정 비중(30%) 제한에 대해서는 “결국 나머지 70%는 더 높은 리스크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BDC 비율과 개인투자자 위험배분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단계적으로 30%→10%로 낮아진다.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고려해 2026년 15%, 2027년 10%까지 유예 기간이 설정됐지만, 부동산 싼름을 줄이

려는 금융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 베일에 가려진 IMA 상품

첫 IMA 상품의 구체적 구성과 위험등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졌다. 관련 상품에 대한 형태·위험 수준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는 “두 회사가 경쟁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투자설명서·약관이 회사별로 개별 심사 중이며, IMA는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않고 기준수익률(성과보수 허들), 위험등급, 주요 투자대상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용 이력이 쌓인 뒤에는 과거 수익률이 추가 정보로 제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재 기준 역시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8조 종투사 인가 취소 가능성’이나 ‘모험자본 공급률 미달 시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취소 규정이 존재한다”, “협의체에서 점검하며 논의한다”는 원칙적 답변만 돌아왔다. 초기 사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발행어음과 IMA가 동시에 재가동되면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조달 경로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다만 첫 IMA가 어떤 구조로 등장하고, 모험자본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생

산금융’ 전환이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IMA는 고객 예약금을 통합 운용해 실적을 배분하는 계좌로, 외형만 보면 예금과 유사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금융위는 “원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지만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며, 중도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도 “발행어음 조달액이 아닌 전체 자산으로 의무를 채우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첫 상품의 구성과 위험등급에 대해선 두 회사 모두 경쟁 상황을 이유로 구체적 설명을 자제했지만, 금융위는 “회사별로 투자설명서와 약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연내 첫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모험자본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코스닥 기업 분석이 부족해 중소·벤처기업 투자 회수 경로가 제한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종투사 중심으로 코스닥 리서치 전담부서 확대와 기업 분석 범위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거래소, 美 ‘FIA Expo’ 참가… 韓 자본시장 경쟁력 소개

홍보부스 운영·컨퍼런스 참가
KRX 야간시장 운영 성과 공유

한국거래소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파생상품 컨퍼런스 ‘FIA Expo 2025’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FIA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40여개 세션별 컨퍼런스 진행 및 60여 개에 달하는 참가기관들의 홍보부스 운영으로 구성됐으며, 약 4000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거래소는 파생상품 산업의 중심지이자 한국 파생상품시장 투자 기반이 공고한 핵심 마케팅 지역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와 현지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KRX 파생시장 고객기반(계좌수) 2위, 거래대금 6위 지역에 꼽힌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가운데)이 지난 17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파생상품협회(FIA) Expo에 참가해 KRX 홍보부스를 찾은 현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KRX 파생상품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행사 기간 동안 거래소는 홍보부스 운영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올해 6월 개장한 KRX 야간 파생상품시장 운영 성

과와 10월 신규 상장한 코스닥150위클리옵션 및 주요 제도 개편 사항을 적극 소개했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전망’(서클 CEO 초청 대담), ‘가상자산 거래생태계 발전(코인베이스 임원 발표 세션)’ 등 주요 세션별 컨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 최신 트렌드 및 향후 인프라 발전 방향 등을 파악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최근 코스피 강세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효율적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이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시장 불안에 가상자산 수직하락… “올해 상승분 다 사라져”

비트코인, 한 달새 25% 급락

최근 한달반 사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760조원) 증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상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1만8000개 이상의 가상화폐 시총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12만6251달러)를 찍은 지난날 6일 이후 25% 급락해 1조2000억달러 감소했다.

투자은행 칸토 피츠제럴드의 가상화폐 애널리스트 브렛 크노블라우는 “기관

의 (가상화폐) 채택 확대와 규제 측면의 긍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분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한 달간 초고위험 레버리지 포지션의 손실이 매도세를 가속했다고 분석했다.

시장 불안을 촉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날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내

최고가 대비 14% 넘게 수직 낙하했다.

가상화폐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리서치 총괄 라이언 라스무센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랑한다. 우리가 거둬보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연중 고점 대비 30% 급락한 비트코인은 나스닥 종합지수, 아이셰어즈 20년 미 국제 상장지수펀드(ETF), 금, 미국 유틸리티 지수, MSCI 이머징마켓 지수 등 자산들과 비교해도 올해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신하은 기자



서유석
현 금융투자협회장



이현승
前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

정영채 메리츠증권 고문 불출마
서유석, 금투협 최초 연임 도전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가 서유석 현 협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은 출마하지 않았다.

현직 회장인 서유석 회장은 금투협 출범(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도전했다. 그는 전날 밤까지 서류 준비를 마치고 마감 당일 오전에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회원사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

체를 위한 역할이 협회장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엽 대표는 40년 가까이 신영증권 한국에서 근무한 ‘정통 신영맨’으로, 자산운용·IB·경영총괄 등 현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정책 조율과 업계 소통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된다.

관료 출신인 이현승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경력을 토대로 대관 능력을 내세웠다. 그는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회원사의 신사업 인허가 지원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후보 명단을 압축한다. 최종 회장은 12월 중순 열리는 총회에서 회원사 투표로 결정된다.

/허정윤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 법적 규제 밖 실질경영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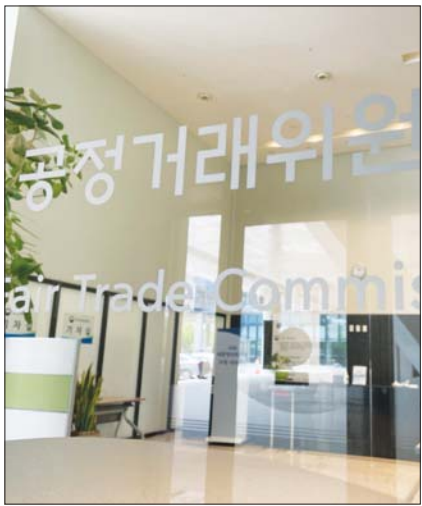
공정위, 공시집단 지배구조 공개
사익편취 대상社 미등기임원 다수
이사·미등기 직원 겸직 관행 여전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 작동 미흡
안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 지속
소수주주 보호제도 실효성 낮아

대기업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율 밖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책임경영의 사각 지대가 넓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 확대와 미등기임원 증가가 뚜렷하다.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은 공정위가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분석해 공개한다. 올해 분석대상은 2025년 공시집단 92곳 중 신규 지정 집단 등을 제외한 86개 공시집단 소속 2994개사다.

우선 총수 있는 77개 집단 미등기임원 비율은 전년 5.9%에서 7.0%로 증가했고, 상장사의 경우 같은 기간 23.1%에서 29.4%로 급증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미등기임원 비중도 54.4%로 절반을 넘는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고,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높았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도 회장·사장·전무 등 직함을 통해 업무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임원이다. 읍잔디 공정위 기업 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도 문제다.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2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 직함을 보유한다. 특히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 (7.3개), '한화'·'태광' (각 4개), '유진' (3.8개), '한진'·'효성'·'KG' (각 3.5개) 순이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많이 맡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업무 집중 곤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개정돼 시행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으나,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증가하면서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 수준으로 법정기준(44.2%)보다 높고, 법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시와 견제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되고 있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음 과장은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도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총수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로 견제 기능이 강한 보상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낮았다.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등은 88.4%의 상장사가 도입했고,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도 93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었고, 실제 실시 건수는 3년 연속 1건에 그쳤다.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높았지만 소수주주의 실제 전자투표 행사율은 1%대에 그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영농형 태양광, 농촌미래 핵심과제”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전국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9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부작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하에 과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향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 현장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도입 관련한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이 상세히 공유됐다. 아울러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발전사업 주체를 비롯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립한 다양한 시각 및 입장을 (가칭) '영농형 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속가능 에너지 생태계·지역 상생 강화”

한전, 'BIXPO' 성황리 폐막

한국전력이 지난 11월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가 국내외 총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166개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5360만달러 수출 성과도 달성했다.

개최 10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TEDx KEPCO 등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기술·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차세대 전력산업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신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한전관'에서는 I-DPP, SEDA, ADMS 등 주요 전력신기술을 T-OLED 방식으로 선보였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지역 기반 산업·인

재 생태계를 소개하며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스토어닷, 리벨리온 등 유니콘 기업과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이 참여해 관람객 관심을 끌었다.

국제컨퍼런스는 총 41개 세션이 열렸다. 특히 'Powering AI, Energizing the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한 Energy Leaders Summit에서는 S&P 글로벌, AWS, EPRI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산업 적용과 전력망 운영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KEPCO R&D 컨퍼런스에서는 DC 그리드, 차세대 전력망, AI 융합 기술 등 한전의 연구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7개국 17개사와 국내 3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수출계약·MOU 13건을 포함해 총 5360만달러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K-스마트농업 기술’ 인니 정부에 전수

농식품부·농정원

청년농업인 소득향상 사업 이양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 협력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양했다고 밝혔다.

19일 농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농업부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K-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말레니얼 농업인 소득개선사업' 완료 보고 및 이양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부가 실시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말랑·보고르 지역에 K-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양식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또 구축된 스마트팜 시설·운영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측에 공식적으로 이양했다.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현지 기후에 맞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농업부 청사에서 한·인니 간 'K-스마트팜 기술 이양식'이 열리고 있다. /농정원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INAKOR FARM'을 통해 수라바야 지역 Hokky 마트 4개 지점에서 멜론·토마토·파프리카를 판매하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K-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저온저장·포장 개선·품질유지관리 체계로 농산물 신선도가 크게 향상됐다. 생산·판매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도 마련했다.

사업 기간 500여 명의 인도네시아 청

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 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연수 후 자체적으로 온실 개보수나 수경재배시설을 도입해 5배에 달하는 농업용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알리 자밀 인도네시아 농업부 사무총장은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 농업 인적 자원 교육 강화와 농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큰 혜택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안재록 농정원 부원장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 스마트농업 기반의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업용 비서 'AI 이삭이' 고도화 착수

농진청, 해충·출하시기까지 통합 제공

농촌진흥청이 농업용 인공지능(AI) 비서인 'AI 이삭이'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5년 내 농가수입을 평균 20%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농진청이 축적해온 고품질 데이터를 AI 이삭이에게 학습시킨다. 연간 농사계획, 기상재해 정보, 해충 이동경로 예측, 출하시기 등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의 AI 적용을 가속화해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농산업 구조의 혁

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농가 수입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기술 개발·보급 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은 AI 융합을 통한 현안 해결, 데이터·인프라·인재를 잇는 AI 생태계 조성, AI 기반 연구·보급·조직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 진단 및 예측을 기반으로 한 AI 농업비서 AI 이삭이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AI 이삭이를 '올타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확대해 1년 농사 계획부터 일일 작업 결정까지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포항시, 세계 최초 CVD그래핀 필름 양산체계 구축

(화학기상증착)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식
시생산 거쳐 내년부터 본격 양산
산학연협의체 출범식도 진행

포항시는 지난 18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 이남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캘리스코, 포스코홀딩스 등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전도성, 유연성, 투명성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소재다. 정부는 지난 8월 그래핀을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바이오 신약, AI 슈퍼컴퓨터, 항공 우주 등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항시

황이다.

이러한 산업 흐름 속에서 그래핀스퀘어는 그래핀 상용화를 실현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보고된 화학기상증착(CVD) 기반 대면적 그래핀 합성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CVD그래핀 필름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타임지, CES, German Design Award 등 해외 유력 매체와 전시회에서 다수 수상하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포항공장 준공으로 그래핀스퀘어는 시험, 분석 및 시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CVD그래핀 필름의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프리미엄 조리가전, 자동차용 발열유리, 뷰티·헬스케어 기기, 웨어러블, 항공우주·조선 부품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식에서는 '포항 그래핀밸리 구축을 위한 산학연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협의체는 그래핀스퀘어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기

관으로 구성되며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기업 유치,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포항시는 그래핀 산업의 잠재력을 일찍이 파악하고 성장 기반 확장에 속도를 내 왔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그래핀 혁신 생태계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포항의 선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그래핀 분야 첫 현장 방문지로 포항을 선택한 것도 포항이 국내 그래핀 산업의 실질적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준공은 그래핀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이 포항을 세계 그래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s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완료

산청군은 '동의보감 물길따라, 약초마을 향기따라-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33억원이 투입됐다.

경호강변 일원에는 산청읍과 동의보감촌을 잇는 1.26km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전광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산청읍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열려

부산시는 19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와 16개 구·군자원봉사센터, 벡스코 등이 공동 주관하는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김치나눔 행사로, 올해 15회째인 이 행사를 위해 40개 기업·기관에서 2억원 상당을 후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후원 기업 및 기관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1만여 포기(31t) 김치를 담구었으며, 완성된 김치는 부산 전역의 홀로 어르신 등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이웃 6200여 가구에 5kg씩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세계 1위

부산항만공사(BPA)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국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영예를 안았다.

BPA는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PA는 전 세계 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 중 10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하며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으며,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종합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해남문예어울림센터 조성

해남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허브가 될 해남문예어울림센터가 조성된다.

해남군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창작 허브를 구축하고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40억원을 투입, 해남문예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해남문예어울림센터는 건축규모 625.85㎡, 2층 신한옥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 전용공간과 창작활동 시 일상생활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오는 2027년 말 개통 예정

토목공사 공정률 92~99% 기록
내달 22일까지 상부도로 전면 개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오는 2027년 말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2026년 말까지 모두 마치고 1년간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말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서구와 남구지역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됐으며 토목공사 공정률은 1~6공구 92~99%를 기록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상부도로 통행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부도로 개방률은 지난 10일 기준 1공구(차량기지~운천저수지) 93%

로 2공구(월드컵경기장) 34%, 3공구(무등시장 인근) 60%, 4공구(남광주 고가도로 앞) 59%, 5공구(산수오거리 인근) 71%, 6공구(광주역 뒤편) 78%이다.

광주시는 지하도 공사와 병행되는 백운광장과 도시철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진출입로가 설치되는 정류장 구간을 제외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상부도로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 20km(18개역사)구간으로 공사는 1단계(6공구)·2단계(8공)로 나뉘어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됐다. 1단계 구간 토목공사가 공정률 90%를 넘어섬에 따라 2단계 공사도 7·10공구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내달 2일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

호남 지역 근대 선교의 발자취를 담은 군산 선교역사관이 4년간의 건립 과정을 마치고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구암동 현지에서 주요 관계자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 원(선교기념탑 포함)을 들여 조성됐으며, 지역 근대 교육의 상징인 멜볼디여학교의 외형을 본떠 건축돼 그 의미를 더했다.

군산은 1895년 윌리엄 전킨(William M. Junkin, 전위령) 선교사가 발을 디딘 선교지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 외에도 영명학교, 멜볼디여학교를 세워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



군산 선교역사관.

산 예수병원을 통한 의료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등 선교활동을 펼치며 근대화에 기여했다.

역사관은 지상 3층(연면적 998㎡)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과 2층에는 군산 지역에서 전개된 근대 선교활동 자료, 문헌, 유물 등이 전시된다.

/군산(전북)=정훈 기자 tajji1819@

김해시, 노후 공업지역 첨단산업 중심 재편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계획수립

김해시가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규모 정비 작업에 나선다.

김해시는 2035년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내년부터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은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 등 유형별 관리 방안에 따라 기반시설 개량, 업종

재배치, 환경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비 대상은 산업단지 등 계획적 개발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이다. 관내 공업지역 총 10개소(9.0㎢) 중 노후도와 미개발지 현황, 접근성, 업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과급 효과가 큰 구역부터 시범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기초 조사와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에 이어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서 '韓 지방시대 엑스포' 열려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 참여

대한민국 지역 균형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균형성장비전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막 첫날인 19일 오후 2시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알렸다. 또한 학술대회(콘퍼런스) 및 정책·학술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미래 지역 정책을 논의한다.

전시회는 366개 공간(부스) 규모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성과와 주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는 개최지관(울산광역시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를 주제로, 산업수도를 넘어 AI수도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보인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취향 소비 지고 체감 가성비 부상 외식업계, 멀티메뉴 등 전략 수정

경기둔화에 소비자 지출 기준 변화
업계, 가성비 메뉴 중심 새판 짜기
숍인숍 매장 확대 등 전략 다변화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출 기준이 '취향 소비'에서 '체감 가성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심 수요를 잡기 위해 치킨·버거·피자 간 경계를 허문 멀티메뉴를 선보이는가 하면,숍인숍 매장 확대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가성비 소비가 외식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고가 전략을 앞세워 상륙했던 해외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들부터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때 줄을 서서 입장하던 '고든램지 버거' 매장은 대기없이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고든램지 스트리트버거는 가장 비싼 햄버거 하나가 14만원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비싼 가격에도 고급 수제버거를 먹기 위해 MZ고객들이 몰렸지만, 초반 이슈몰이 이후로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고든램지버거는 기존 버거 중심의 메뉴 구성에서 벗어나 일부 매장을 '메뉴 바이 고든램지' 등 패밀리 다이닝 콘셉트로 변경, 메뉴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파이버가이즈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 6월 갤러리아가 들여온 이후 이른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최근 판교·광교 등 주요 매장에서 대기줄이 눈에 띄게 줄었다. 갤러리아는 흑자는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업권 매각을 전략 옵션으로 검토할 정도로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다이닝브랜드그룹은 올해 햄버거 브랜드 '슈퍼두퍼(SUPER DUPER)'의



맘스피자 숍인숍 매장 내부.

/맘스터치앳컴퍼니

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슈퍼두퍼는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로 박현중 전 bhc그룹 회장이 직접 주도해 2022년 11월 강남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흥대점, 코엑스점 총 3 곳에 매장을 출점했다. 불황으로 프리미엄 수제버거 시장 전망이 좋지 않자 다른 외식 브랜드에 집중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소비 둔화 속에서도 가성비를 앞세운 브랜드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bhc와 교촌치킨은 최근 점심 수요 공략을 위해 잇달아 치킨버거를 선보였다. bhc는 서울 개포자이스퀘어점에서 닭고기 패티를 활용한 버거 3종을 오전 11시~오후 5시 한정 판매하며 하루 약 70개를 판매 중이다. 교촌은 판교 본사 1층 델리형 매장 '소식'에서 간장·히나·레드 양념 치킨을 버거로 재해석해 판매 중이다. 향후 치킨버거 확장 계획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치킨 브랜드의 버거 판매를 '수익 구조 다각화의 필연적인 시도'로 본다. 한 관계자는 "버거는 점심 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높아 소비침체기에 적합한 카테고리"라며 "5000~7000원대 런치버거 가격대가 소비자들에겐 부담 없

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경기 둔화가 만든 또 다른 흐름은 '멀티 메뉴 플랫폼화'다. 대표 사례는 맘스터치의 피자 전문 브랜드 '맘스피자'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맘스피자는 2023년 천호로메오점에서 숍인숍 모델을 시작한 지 2년 5개월 만에 200호점을 돌파했다. 버거·치킨 매장에 피자 메뉴를 더해 시간대별 고객 수요를 모두 포착한 것이 주효했다. 숍인숍 전환 매장은 평균 매출이 34% 증가했고, 일부 매장은 70% 넘게 뛰었다. 피자 판매가 버거·치킨 매출까지 끌어올리는 '상호 상승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맘스피자 가맹점 매출은 올해 전년 대비 68% 급성장했으며, 업계 상위 20개 피자 브랜드 중 최근 2년간 점포 수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2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과 멀티메뉴가 소비자 니즈와 맞아떨어진 결과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기일수록 소비자는 '내가 낸 값만큼 만족감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본다"며 "브랜드 충성도를 신메뉴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테라X모나용평' 겨울 캠페인

스키장 시즌권 등 경품 추첨

하이트진로는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국내 대표 맥주 '테라(TERRA)'와 스키 리조트 '모나용평'이 손잡고 겨울 캠페인을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겨울 스포츠 마케팅 협업을 통해 MZ세대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청정한짜릿함이 스키장을 휘몰아친다'는 콘셉트 아래 테라의 청정 이미지와 겨울 스포츠의 역동성을 결합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5개 스키장에서

이용가능한 시즌권이 걸린 '테라 X 모나용평 경품팩'이다. 19일부터 이마트, 농협 하나마트 등에서 테라 453mL 캔 8본입 제품으로 한정 판매되며, 경품팩 구매 고객은 팩 내부에 부착된 경품 쿠폰으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1등 경품인 'X5 시즌권'은 25/26 시즌 동안 모나용평, 하이원리조트, 웰리힐리파크,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엘리시안 강촌 등 5개 스키장의 슬로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시즌권이다. 이외에도 모나용평 시즌권, 모나용평 일일 리프트권, 블랙보리 모바일 기프트콘 등도 경품으로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양식품, '삼양1963' 옥외광고 개시

성수동서 진행... 2030 소통 강화

삼양식품은 신제품 '삼양1963' 출시를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옥외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삼양1963' 옥외광고 캠페인은 수증기 장치를 활용해 갓 끓인 '삼양1963'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삼양식품은 라면 특유의 따뜻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을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가 감성적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삼양1963'의 핵심 타겟층인 2030세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삼양식품이 성수동에서 진행한 삼양1963 옥외광고

/삼양식품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동 상권의 중심 구역에 광고를 배치했다.

삼양식품은 라면의 본질인 따뜻함을 내세운 옥외광고를 통해 브랜드 노출 효과를 제고하고, 2030세대와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빨대 없는 스토어 만들어요”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전환 촉진

CJ제일제당은 자원순환사회연대(NGO), CJ푸드빌과 함께 일회용 석유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빨대 없는 스토어 만들기(Be Straw Free)'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빨대 없는 스토어 만들기' 캠페인은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기후 위기 대응 실천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매장 내 일회용 석유계 플라스틱 빨대를 비치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 생분해성 PHA 빨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일회용 석유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분해성 PHA 빨대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PHA는 퇴비화가 가능해 '탈(脫)플라스틱'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을 잔류시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PHA빨대는 생분해가 가능하고 내구성 뛰어나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종이 빨대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PHA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롯데타운 크리스마스마켓' 운영

800평 규모... 내년 1월 4일까지
체험형 상점 등 51개 부스 마련

롯데백화점이 역대 최대 규모인 800평대 '롯데타운 크리스마스마켓'을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46일간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광장에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마켓은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을 모티브로 기프트, F&B, 체험형 상점 등 총 51개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13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과 하루 5번 인공 눈을 뿌리는 '스노우 샤워', 2층 회전목마 등 몰입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롯데 계열사 및 파트너사와의 협업도 돋보인다. 롯데웰푸드는 '가나 초콜릿 하우스'를 통해 '팻위치 뉴욕'과 협업한 디저트와 굿즈를 선보이며, 올리브영은 '딜라이트 프로젝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먹거리 부스는 지난해보다 20% 확대해 총 26개를 운영한다. 성수동 핫도그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전경

/롯데백화점

맛집 '밀스', 용리단길 맛집 '뽕뽕뽕', 롯데호텔세프가 만드는 떡갈비 등 스페셜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또한 '우더플라이프', '앙시', '프레젠틘모먼트' 등 16개 기프트 상점과 '팝마트', '레고' 등 인기 IP 굿즈 부스도 들어선다. 체험형 이벤트로는 소원 메시지를 적는 '위시볼'과 '후지필름 포토부스' 등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프라이빗 라운지'도 선보인다. 마켓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샴페인과 케이크 등을 제공하며 유료 예약제로 운영된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4시 이전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오후 4시 이후는 유료 입장권이 필요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동아오츠카 '데자와 분말스틱' 출시

동아오츠카는 프리미엄 로열 밀크티 브랜드 '데자와(TEJAVA)'가 기존 캔과 페트 제품에 이어 분말스틱 형태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데자와 분말스틱(사진)'은 깊은 홍차의 향과 부드러운 우유의 맛을 그대로 담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분말 형태로 제작돼 휴대가 간편하며, 뜨거운 물이나 찬물 모두에 잘 녹아 사계절 내내 취향에 따라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진한 홍차의 향과 우유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밀크티 시장의 다양성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국내 바이오, CNS 영역 넓힌다… 기술수출 이어 임상 확대

〈중추신경계〉

에이비엘바이오 8조 기술이전
SK바이오팜 글로벌 3상 확대
아리바이오 알츠하이머 3상 진입
비보존제약 후속 CNS 후보 준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중추신경계(CNS)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글로벌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에이비엘바이오가 잇따라 수조 원대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며 뇌혈관장벽(BBB) 투과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한 가운데, SK바이오팜·아리바이오 등 주요 기업도 CNS 파이프라인 강화에 속도를 내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들어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계약을 확보하며 ‘그랩바디-비(Grabody-B)’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12일 미국 일라이 릴리와 약 3조8236억원 규모의 ‘그랩바디-비’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그랩바디-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한다. 특히 적응증을 비만, 근육 질환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일라이 릴리와 22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까지 맺었다. 해당 투자는 이중항체 ADC(항체·약물접합체) 등 회사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앞서 올해 4월에도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약 4조1104억원 수준의 ‘그랩바디-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뇌질환 연구개발을 표현한 이미지.

그랩바디-비를 적용한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점적 권리를 이전한 것이다. GSK는 그랩바디-비를 소형 간섭 RNA(si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항체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활용한다.

그랩바디-비는 약물의 뇌혈관장벽(BBB)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로,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해 중추신경계(CNS) 질환의 발병 원인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그랩바디 플랫폼의 사업화 잠재력을 재확인했다”며 “현재 그랩바디 위상은 매우 높고 그랩바디 적용 가능 모달리티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살려 에이비엘바이오의 그랩바디가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넥스트CNS’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대표 품목인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신규 적응증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되어 처방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전신발작으로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SK바이오팜은 오는 12월 열리는 2025 미국뇌전증학회(AES)에서 임상 3상 세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내 122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만 12세 이상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세노바메이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긍정적인 타라인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집중력 장애 치료제 후보물질

‘SKL13865’, 조현병 치료제 후보물질 ‘SKL20540’ 등도 CNS 영역 관련 물질들이다. 최근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텍 기업 인테론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제 후보물질 공동연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기반 뇌전증 관리 헬스케어 위한 조인트 벤처 ‘멘티스케어’를 출범하는 CNS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리바이오와 SK케미칼은 알츠하이머병 신규 제형을 개발하며 협력해 왔다. 국산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신약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아리바이오의 경구형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는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미국, 유럽 7개국, 한국, 중국 등 총 13개 국가에서 1535명의 환자 등록을 마치고 최종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비보존제약도 CNS 시장을 공략하는 움직임이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제38호 국산 신약으로 아나프라주를 내놓음으로써 ‘다중 타겟 화합물 발굴 플랫폼’ 경쟁력을 높였다.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VVZ-3416’ 등을 보유하고 있어 오는 2026년 하반기 국내 임상 1상 개시를 추진한다.

비보존제약에 따르면 VVZ-3416은 다중 타겟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약후보물질인 만큼, 파킨슨병, 운동 이상증, 노인성 치매 및 루게릭병 등 여러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에 적용 가능한 기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아제약

‘육식과 키위효소’ 선택 단백질 분해 기능 강화

동아제약은 CU편의점에서 ‘육식과 키위효소’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 ‘액티니딘’에 주목해 개발된 제품이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슈퍼푸드에 알려졌고 예로부터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 작용에도 활용되어 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육식과 키위효소는 뉴질랜드산 그린키위를 동결건조해 만든 원료 ‘악타진’을 함유한다. 악타진은 단백질 분해 효소 액티니딘을 포함하며 장 운동을 돕는 효능을 갖는다.

여기에 단백질 분해 효능을 검증 받은 파인애플 유래 효소 ‘브로멜라인’까지 더해졌다.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상큼한 키위맛 분말형 제품으로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또 브랜드명은 ‘육식파를 위한 육식타파 제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육식파 키위효소’

/동아제약

CJ올리브영, 美 1호점 첫선… K-뷰티 현지공략 가속

글로벌로 전체 매출 40% ‘미국’
물류 협업에 K-브랜드 진출 확대

CJ올리브영이 미국 현지에서 K뷰티 특화 매장을 선보이며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교류하고 K쇼핑을 본격 확산한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26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지역에서 미국 1호 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을 보유

하고 있고 세포라, 얼타뷰티 등 글로벌 뷰티 전문 유통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올리브영은 패션·뷰티에 특화된 핵심 상권에 우선 출점해 유행에 민감한 MZ세대 소비자를 먼저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후 2026년 내 순차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웨스트필드 등에 복수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아마존, 올리브영 글로벌몰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구축한

‘K뷰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리브영은 글로벌몰 등을 통해 이미 미국 시장에서 K뷰티 성장세를 입증해 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올리브영 글로벌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리브영은 지난 7월에는 글로벌 특송 기업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퍼레이션과 한미 특송 및 미국 내 물류 서비스에 대

한 업무협약도 맺은 바 있다. 향후 CJ대한통운 미국법인과 협업해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브랜드의 수출 확대도 전망된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차세대 K뷰티 브랜드를 발굴하는 ‘K-슈퍼루키 워드 영’ 본사업을 운영하며 국산 브랜드를 전 세계로 진출시키고 있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케이캡’, 세계일류상품 선정

P-CAB 계열 국산 30호 신약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에서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97개의 ‘현재 세계일류상품’ 중 의약품으로는 케이캡이 유일하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국내 우수 상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사업이다. 세계 시장점유율 5% 이상, 세계 5위 이

내, 연간 수출 규모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과 기업을 ‘현재 세계일류’로 선정한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은 제30호 국산 신약이며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약효가 나타나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를 유지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청하 기자

쿠팡, 로켓배송 인기 먹거리 9000개 할인

가공·건강식품 등 전범위 적용

쿠팡이 9000여개 먹거리를 모은 식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기획전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1000여개 인기 식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라면, 밀키트 등 가공·즉석식품부터 건강식품까지 폭넓은 카테고리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선보인다.

대표 브랜드로는 종근당건강, 뉴트리원, 풍년보감, 황금이네, 전두유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인기 유튜브 하باط 협업

한 신제품이 최초로 공개되며, 오픈 기념 특별 할인도 적용된다.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후기 100개 이상을 보유한 믿고 먹는 쿠팡템, 가성비 식품을 모은 1만원 이하, 최근 구매 많은 상품 등 다양한 테마관도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종근당건강 비타민 D 2000IU, 풍년보감 6년근 고려홍삼정 에브리데이100 홍삼스틱, 완전두유 검은콩 17곡 고칼슘, 황금이네 생강청 등이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 보증기간 연장

한국필립모리스는 궤련형 전자담배 기기 최신 라인업인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의 보증 정책을 확대해 소비자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객 만족도 제고와 함께, 비연소 제품 카테고리의 저변 확대와 소비자 중심 혁신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보증 정책 강화는 일루마 i 시리즈 전 제품에 적용되며, 총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보증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6개월의 기본 보증과 기기 등록 시 6개월의 연장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조치로 추가 6개월이 더해져 총 18개월간 무상 보증이 가능해졌다.

정책 시행 시점은 제품 출시 이후 이미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왔으며, 현재 일루마 i 시리즈를 사용 중인 고객은 기기 등록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대된 보증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구매 고객은 아이코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회원가입 및 기기 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한정동 아동문학상

관객 평점 **9.9**, **120만** 독자의 선택
웃음 빵! 재미 팡! 가슴 뭉클!! 올 겨울 꼭 봐야 할 뮤지컬!



뮤지컬

가슴아들어주는 아이들

20개월 이상 관람가

2026.01.03~02.08 능동 상상나라극장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음CIL 마케팅 두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예매 NOL ticket 문의 02-764-9102



한수원,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선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8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2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AI 기반 원전수출 통합 지원 플랫폼', '한수원 DB 연동형 AI 문서 자동생성 플랫폼' 등 두 과제가 차지했다. /한수원



금호석유화학, 임직원과 파초일엽 양육·식재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멸종위기종 파초일엽의 성공적인 양육과 식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룹 6개 회사 본사 및 서울사무소 전 임직원들은 올해 2월부터 파초일엽 양육 프로젝트에 참여해 특별로 두 그루씩 맡아 꾸준히 돌보았으며 이렇게 자란 파초일엽 210그루를 최근 금호제주리조트 화단에 식재했다. /금호석유화학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에스티 견학 프로그램 진행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8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2학년 학생 42명을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및 연구실로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된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동아쏘시오그룹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체어', 우수디자인 선정

코웨이의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MC-R01)'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에 선정됐다. 19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Work), 릴랙스(Relax), 마사지(Massage)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다기능 체어다.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기능으로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코웨이



GS리테일, ESG 평가서 2년 연속 'A+ 등급'

GS리테일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정기 ESG 등급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SG 평가 최고 등급인 A+를 달성했다. 올해 평가 대상 805개 기업 중 통합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49곳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GS리테일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사업보국' 정신 기린다

호암미술관 선영서 38주기 추도식 삼성 총수 일가, CJ그룹 등 참석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8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삼성에서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이날 오전 용인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호암의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과 일정이 겹쳐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 회장은 귀국 후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8주기 추도식이 열린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태광그룹, 수험생에 무료전시 제공

세화미술관 '노노탁 스튜디오' 전시

태광그룹 세화예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세화미술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확인 후 무료입장할 수 있다. 수험생 관람객에게는 노노탁 스티커 등 전시 기념 굿즈도 제공된다.

현재 세화미술관에서는 LED 빛과 사운드를 결합한 실험적 설치 작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크리에이티브 듀오 노노탁 스튜디오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노노탁은 비주얼 아티스트 노에미 쉬퍼와 빛·사운드 아티스트 타카미 나카모토가 2011년 결성한 팀이다. 시각예술과



세화미술관 노노탁(NONOTAK) 전시 작품.

공연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노탁이 지난 10여년간 선보인 키네틱 아트, 오디오 비주얼 설치 등 대표 작품을 집약해 선보인다. LED, 프로젝션, 사운드가 결합된 몰입형 공간 설계로 관람객은 빛·소리·움직임이 교차하는 다층적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주)한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등 운영

(주)한화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한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사회공헌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주)한화는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시설의 노후 공간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로고. /주한화

을 맺은 이후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후생원에 '한화와 함께하는 희망보금자리 1호'를 개관했으며 현재 2호점 개관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여름 제철 음식 나눔 봉사활동'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시기별로 운영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따로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을 제외한 삼성 총수 일가는 약한 시간 동안 선영에 머문 뒤 자리를 떠났다. 삼성 사장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호암의 장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아들 이선호 CJ주식회사 미래기획실장 부부,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부부 등과 함께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오후에는 호암의 외손자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신세계그룹 사장단 등이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범삼성 계열 그룹 일가는 과거 호암 추도식을 공동으로 열었지만, 형제인 CJ 이맹희 전 회장과 삼성 이건

희 선대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인 2012년부터는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 별도로 행사를 해 왔다.

범삼성 일가는 이 창업회장의 '사업보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기일에 맞춰 추도식을 열고 있다. 사업보국은 호암의 첫 번째 경영철학으로서,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다.

사업보국은 호암의 첫 번째 경영철학으로서,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다. 이 창업회장은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나의 국가적 봉사와 책임은 사업의 길에 투신하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양그룹,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MPC 유도체, 써지가드 소재 2종

삼양그룹의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 2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선정되며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19일 삼양그룹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과 삼양KCI는 지난 1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상기업으로서 인증서를 받았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로, 연간 수출 실적과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현재·차세대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된다.

삼양KCI의 생체친화적 소재 'MPC(Methacryloyloxyethyl Phosphoryl Choline) 유도체'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삼양바이오팜의 흡수성

지혈제 '써지가드(SurgiGuard)'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MPC 유도체는 인체 세포막의 주요 성분인 인지질을 모방해 피부 친화성과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소재로, 피부 장벽 강화·수분 유지력이 우수해 고보습·저자극 스킨케어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써지가드는 삼양바이오팜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생체흡수성 지혈제로, 체내에서 안전하게 흡수되는 소재를 기반으로 수술 중 출혈 조절에 활용된다.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쓰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 의료기기(CE MDR)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다. /원관희 기자 wkh@

LG U+, ESG평가서 5년 연속 A등급

환경분야, 지난해보다 오른 A+

LG유플러스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의 리스크와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지표다. LG유플러스는 올해도 A 등급을 유지했고, 환경 분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A+ 평가를 받았다.

환경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경영 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LG유플러스는 TNFD(자연 관련 재

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보전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효율 네트워크 장비 도입 등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대전 R&D센터에 설치된 1000kW급 태양광 설비를 운영해 온실가스 저감 활동도 지속 중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소방청과 함께 '119 메모리얼 런'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지배구조에서는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 방안, 주주 환원 계획 등을 포함한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며 투명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seoh@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 **효성그룹** ◇효성티앤씨(주) △부사장 동나이법인장 배인환 △전무 취저우 스팅팩스법인 총경리 임규호

부음

▲시정자씨 별세, 김진국(전 창녕군 계성면장)씨 모친상 = 18일,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1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제3분향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장지 창녕추모공원. 055-533-8510

와인과 황남빵



전 형 일 의
세상이야기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국무장관 시절 자국에서 유명한 요리사 80여 명을 ‘국가 요리사(State Chef)’로 임명했다. 그녀는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요리는 가장 오래된 외교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대국 국민에 대한 ‘공공 외교(Culinary Diplomacy)’다.

중국이 미국과 국교 수립 전 저우언라이가 킨저와 함께한 음식이 베이징 덕, 즉 북경 오리였다. 지금도 영업 중인 ‘취안 쥐더’라는 베이징 덕 전문 요리 집에서였다. 마우쩌둥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뒤 처음으로 인정해 준 소련의 중국대사로 슈친에게 대접한 음식도 베이징 덕이었다. 우리는 중국 황실에서 즐기던 음식이다 보니 이를 대접하는 것은 황제와 같이 모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로써 베이징 덕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배달 된 음식은 평양의 옥

류관 냉면이었다. 이 냉면을 남북한 정상 이 한자리에 앉아서 먹음으로써 평양냉면은 한반도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영국 언론 가디언도 “평화의 상징은 이제 비둘기가 아니라 평양냉면이다”라고 보도했다.

음식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자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화가 된다. 술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인에게 마오타이는 술이 아니라 문화다. 그래서 마오타이는 중국 외교의 현장에 한 부분으로 참여한다.

1972년 미중 정상회담에도, 1984년 홍콩 반환을 위한 덩샤오핑-대처 회담에도 마오타이는 빠지지 않았다.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접대한 술도 마오타이였다. 당시 마오타이 중에서도 최고인 ‘아이쭈이 장핑’이었다. 1960년대 생산된 것으로 한 병에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한 잔에 320만 원쯤 되는 셈이다. 마오타이는 기원전 135년 한 무제가 마시고 칭찬했다는 얘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

2015년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란에 대한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었다. 그런데 이란 측이 오찬에서 와인을 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프랑스는 “이스람 교도가 아닌 사람에게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프랑스는 ‘no wine, no lunch’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존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거절하겠다’로 결정했다. 결국 오찬은 물론 조찬도 없는 회담만 가졌다.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는 와인을 포함한 자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온 프랑스 외교 정책에 대한 천명이었다.

최근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한 ‘황남빵’,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된 ‘비비비당의 오감차(五感茶)’, 중동 왕세자가 고국으로 가져간 ‘볶음김치’ 등은 ‘외교의 상징’이 됐다. 간배주인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역시 각국 정상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이미 잘 알려진 한국 음식 외에 다양한 메뉴로 확장되면서 K-푸드가 외교 성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김밥’을 식탁 한편에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

전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저서 : 명리 인문학, 자주팔자 30문 30답

호의와 호구



기 지 수 첩
서 예 진
(정치부)

“호의를 베풀었더니 호구 취급만 당한다.” 요즘 자주 보는 한탄이다.

선의를 베풀어도 고맙다는 말이 없다.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한 일이 아님에도, 도움을 받은 이가 ‘입을 싹 씻으면’ 찻잔만 게 인지상정이다. 대가 없는 호의를 당연시한다. 기대와 다르면 “이게 다냐?”라고 한다. 친절하게 대하면 ‘호구’라고 생각하고 태도를 달리 한다.

사실 호의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자발적인 선택을 ‘바보같은 선택’으로 만든다. 호의를 관리처럼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선의를 갖고 다가가다가 마음을 다치는 이들이 많아졌다.

‘위선적이다’라는 말도 자주 보인다.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착한 척 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 행동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행동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저건 사람인 척 하기도 하기 싫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에게 되레 “위선 떨지 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격이다.

호의를 건넨 쪽만 상처를 받는 구조.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 때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회. 그래서일까. 선의를 갖고 다가가셨음에도 ‘손해 본 것 같은데?’라는 기분이 든다면, 이게 정상일까. 이 호의엔 대가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음에도.

호의를 건넨 사람들도 “다신 안 한다”고 등을 돌리고,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그것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남는 건 각자도생이다. 도움 받을 때만 사회이고, 도움 줄 때는 손해라고 여기는 분위기에서는 따뜻함이 설

수 없다. 이렇다 사회에 배려를 모르고, 연민할 줄 모르는 이들로만 가득차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언젠가는 틀린 명제가 될지 모른다.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되는 사회’를 원하는가. 혹시라도 본인은 누군가의 호의, 선의,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노조를 비웃던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를 맞닥뜨렸을 때가장 먼저 노조를 찾아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넘어진 이를 비웃던 사람들은 어떨까. 본인이 넘어졌을 땐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할 것이다. 먼저 손을 건넨 이를 보고 조소하는 사회. 남의 배려를 염가에 소비하며 미안함조차 없는 이들. 점점 늘어가는 상처받은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

그러니 호의를 베투지 말자. 베투을수록, 사회의 온기는 점점 식을테니...

/서예진 기자 syj@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주변이 동지과 같이 협조. 48년생 원하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60년생 인내하고 기다리니 많은 좋은 일이 발생 하는 날. 72년생 무리한 투자는 손실로울 수 있다. 8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소

37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49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니 해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61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 73년생 앞던이가 빠지는 기분. 85년생 불로소득이 발생하지만 글썽.



호랑이

38년생 가을에 단비 오듯이 일이 잘 해결. 50년생 밭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62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74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을. 86년생 돌 팔매질을 하면 큰일이 나니 겸손.



토끼

3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니 실망은 금물. 51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63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75년생 적은 돈이 들어와도 주변들과 나누어야. 87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오는 하루.



용

4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52년생 운이 막히니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는다. 64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76년생 십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으니. 88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뱀

41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53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으니 잠시 지체. 65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이니. 77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89년생 위기를 겪으며 중심 부분을 깨닫는다.



말

42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54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침묵할 줄 알아야 현명. 66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다. 78년생 실력은 늘 공으로 먹는 게 아니다. 90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니 당연히 더러워지게 되니.



호랑이

43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겁먹라. 55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뛸지 않는다. 67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스럽다. 79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매인데. 91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한다.



원숭이

4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56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68년생 차 매수는 이후로. 8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92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닭

45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 57년생 획기적인 발상으로 큰일을 한다. 69년생 작은 약속도 가볍이 여기지 마라. 81년생 운을 바꾸자면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도 시켜라. 93년생 동료에게는 항상 말조심을.



개

46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58년생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 가기 나름이다. 70년생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되니. 82년생 진실이 늘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하다. 94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돼지

47년생 황혼이혼은 결국 사면초가를 면치 못한다. 59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71년생 자식이 자랑거리를 잔뜩 가져온다. 83년생 상처는 나이도 흉터는 남는다. 95년생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하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지혜와 품격

숙종을 이어 보위에 오른 장희빈 소생의 경종, 다음으로는 경종의 이복동생인 영인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영조다. 조선조 왕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못넘기던 것에 비하면 참으로 축복받은 장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80세를 넘기며 장수하여 51년을 넘게 재위했고 조선 후기의 중흥을 이끌었으니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게 하는 결정을 내려 임오壬午화변을 겪게 하였다. 壬午화변으로 영조의 치세는 흠을 갖게 되지만 장수하는 영조보다 일찍 세상을 뜬 정성왕후 이후 66세 때 맞이한 이가 정순왕후다. 정순왕후는 15세라 하였으니 무려 50년의 나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 규수가 지혜와 혜안만큼은 나이를 불문하게 했다. 당시 왕후를 간택하는 자리에서 영조는 직접 간택대상자들을 놓고 묻는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나는 왕의 물음에 다른 규수들은 물이 깊다, 산의 골짜기가 깊네 했지만, 정순왕후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깊다고 답한다. 감탄하며 다시 질문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냐 물으니 가장 아름다운 꽃은 목화꽃이다. 왜냐하면, 향기와 빛깔은 없으나 백성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라는 말에 영조는 감탄하며 이아가씨를 왕후로 삼는다. 어리지만 지혜와 혜안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영조의 사후, 정순왕후는 이후 내리 정조와 순조대를 거치며 쉼 안의 왕대비로서 특히 11살에 즉위한 순조 때에는 수렴청정하면서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조를 사로잡은 지혜와 혜안이 어디 갔겠는가마는 후사는 정순왕후가 정조를 독살하는 데 힘을 합쳤다고도 하고 순조 때 수렴청정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조의 개혁유산을 후퇴시켰다고도 한다. 모쪼록 왕비 간택시에 보여준 일화가 사실이라면 보통 여인은 아니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6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0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1577명 공개

체납액 1000만원 이상·1년 이상 경과
총액 1232억… 개인 최고 47억 체납

서울시가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 현황을 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자치구·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 세금 39억원이 징수됐으며, 납부·이의 제기·소송 진행 등 사유가 인정된 246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1577명으로, 체납액은 1232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078명으로 736억원, 법인은 499개 업체로 49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임대

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이경석(35)으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과 협력해 명단 공개 체납자의 해외직구·입국 휴대품까지 통관 보류 후 매각 처분을 통해 징수에 나서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원외재판부 신설·법조타운 조기조성 맞손

경기도·법무부·법원행정처·의정부시
경기북부 사법복지 향상 업무협약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해, 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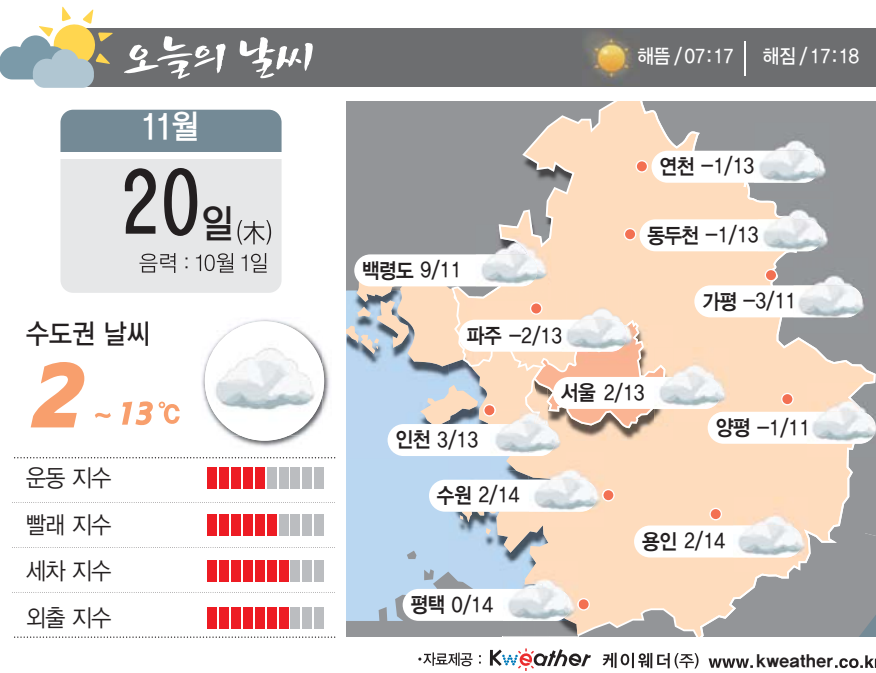
협약은 경기 북부의 사법 접근성 향

상과 법조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있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부지 조성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고, 법조타운 준공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료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사법복지 확충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대학생부터 경험·경력 차곡차곡 서울시, 청년 ‘경력 사다리’ 만든다

청년 일자리 정책 ‘서울 영커리언스’
내년부터 2030년까지 1.6만명 지원

선제투자·성장중심으로 정책 전환
재학생부터 진로탐색·실무경험을
캠프-인턴십-점프업 등 5단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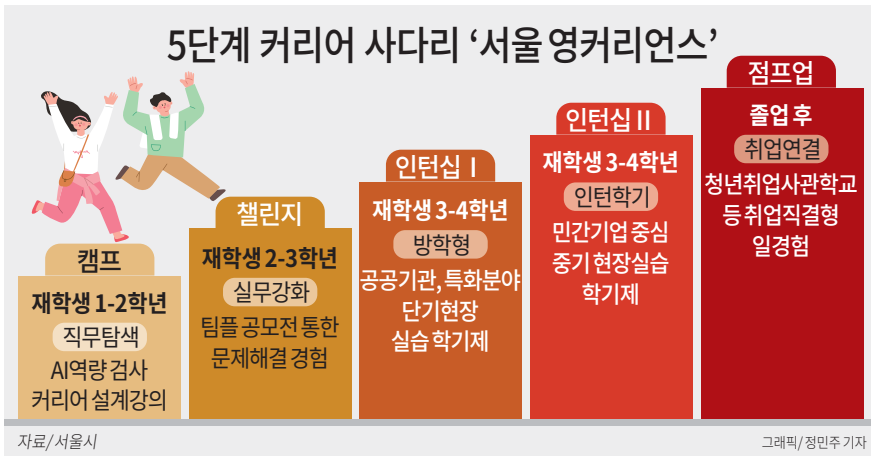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사후 지원형’에서 ‘선제 투자·성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며, 재학생 단계부터 일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만 6000명의 청년에게 단계적 실무 경험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6000명 규모 인턴십 기회를 우선 마련해 청년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재학생 중심 인턴십 플랫폼 구축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수립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프로젝트)’을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총 2895만명(누적)을 지원해 왔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이번 3차 계획에는 미취업 청년 훈련·생계 등 사후 접근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 기조를 보완, 청년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전환적 정책 구조가 담겼다.

◆캠프·챌린지·인턴십·점프업 5단계

서울 영커리언스는 ▲캠프 ▲챌린지 ▲인턴십I ▲인턴십II ▲점프업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대학교 1~2학년생, 비진학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캠프’는 본격적인 경력 형성에 앞서 AI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준비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2단계 ‘챌린지’는 캠프에서 탐색한 진로와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3~4단계 ‘인턴십I·II’에서 청년들은 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된

다. 캠프에서 찾은 직무 적성과 챌린지에서 얻은 문제해결 능력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인턴십은 학점(최대 18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업’은 졸업 후 일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유망 직무 분야, 대기업·스타트업 일 경험을 지원하고 트랜드에 발맞춘 취업 역량 교육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우선 12월 중 기화보한 3500개 기업 풀과 13개 공공기관을 바탕으로 인턴십II(학기 중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미취업 구직자 중심이던 기존 정책을 재학 단계로 전환해, 단계적인 일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의대 15곳 사탐 허용… 과탐 가산점 ‘변수’

의대 39곳 중 15곳, 정시 사탐 허용
과탐 가산점… 실질 합격선은 자연계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15개 대학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개교 늘어난 것으로, 확률과 통계·사탐 조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의대 교차지원 폭이 일부 확대된 셈이다. 다만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합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학가와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39개 대학 중 15개교(38.5%)가 사탐 응시를 허용한다. 가톨릭대·경북대·부산대는 수학·탐구 지정과목을 모두 폐지했고, 고려대도 탐구에 한해 유지하던 지정과목을 없애 필수 응시과목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올해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경

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의대가 사탐 선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사탐 허용 흐름은 치대와 약대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치대에서는 올해 경북대·부산대가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11개 치대 중 5개교가 확률과 통계와 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다.

약대도 가톨릭대, 경북대, 부산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경희대, 동국대, 삼육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E) 등을 포함해 전체 37개 약대 중 13개교가 필수 응시과목을 두지 않게 됐다. 특히 약대는 지정과목이 없는 13개 대학 중 11개교가 수도권에 있어 인문계·확통·사탐 응시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탐 허용이 곧바로 합격 가능성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 응시자에게 3~5%, 많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에서는 3~5%의 가산점만으로도 합격선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사탐’ 조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점수 산출 단계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 합격선은 여전히 자연계 중심(미적분·기하·과탐 응시)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허용으로 의·치·약대 교차지원 폭은 넓어졌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여전히 수학과 탐구 반영 방식”이라며 “대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만큼, 인문계 과목 응시자는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반드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영국 정보기관 “중국, 영의원 보좌진 포섭 시도”…中 “완전한 날조”
▲“中, 日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

/사진 뉴시스

▲살만 만난 트럼프 “사우디 ‘주요 非나토 동맹’ 지정”
▲튀르키예 관광 독일인 사망자 1명 늘어…“호텔 살충제 문제 추정”

▲중일 관계 악화 속 日언론 “한일, 갈등보다 협력 확대를”
▲英 노동당 일각서 ‘스타머 총리 교체’ 논의… “인내심 바닥”



외식업계
취향소비 지고
체감 가성비 부상
L1



Life

국내 바이오
CNS 영역
넓힌다
L2



꽃에서 찾은 기술... ‘하이퍼 플로라’로 피부에 꽃 피우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아모레퍼시픽 ‘마몽드’

1991년 탄생한 2030 화장품 브랜드
유명 여배우 브랜드 모델로 인지도↑
꽃 원료로 차별화... 브랜드 가치 높여
금은화, 장미, 무궁화 등 꽃성분 추출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는 1991년 탄생했다. 마몽드는 프랑스어로 ‘나의 세계’라는 뜻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마몽드라는 브랜드명에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담으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발명하는 데 집중했다.

1990년대 들어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 나면서 시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을 추구했다. 마몽드도 활동적인 20~30대 커리어우먼을 적극 공략하며 신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당시 산소 같은 여자로 알려진 이영애를 시작으로 박주미, 한가인, 박신혜 등 유명 여배우들이 브랜드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꽃을 기반으로 한 원료 차별화를 통해서도 마몽드만의 오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마몽드 ‘퍼스트 에너지 에센스&세럼’의 경우 금은화 꽃에서 찾은 유산균 발효 성분을 갖춘 제품이었다. 금은화의 모든 부위를 1년 동안 자연발효해 얻은 꽃초에는 길어진 발효 시간만큼 향산과 성분이 풍부해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마몽드 ‘로즈’ 제품군도 피부 진정, 보습 효과 등은 물론 향기로운 로즈 풍미까지 더해진 고급미로 많은 소비자 사랑을 받았다. 세계적인 장미 산지인 불가리아의 투리아 마을에서 1년에 오직 딱 30일 이른 아침에 수확한 다마스크 장미만을 담아 특별했다. 저온 초고압 추출 기법이 열로 인한 유효성분의 손상은 최소화하며 신선한 장미 에너지를 구현했다.

지성용 제품이었던 ‘포어 클린’ 제품군에는 여성조를 활용했다. 국내 경북 고령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여성조를 저온 초음파 추출법으로 가공해 기존에 추출하지 못한 여성초의 여러 유효성분을 뽑아낸 것이 특징이었다. ‘포어 클린 블랙헤드 스틱’은 신개념 클렌징 제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00% 여성초 잎과 스크럽 알갱이가 함유되어 블랙헤드는 물론 숨겨진 화이트 헤드까지 제거할 수 있었고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콧등을 가꿀 수 있었다. 막대형으로 설계됐고 위시오프 타입 제형이 처방되면서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피부 자극은 줄인 것도 새로웠다.

‘무궁화 보습 장벽 크림’은 무궁화의 강력한 생명 에너지로 한층 강화된 고기능성 제품이었다.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에 무궁



- ①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라인 마스크 3종.
- ② 브랜드 모델 원터가 ‘로즈 리퀴드 마스크’를 소개하고 있다.
- ③ 1990년대 유명 여배우 이영애가 브랜드 모델로 등장했다.
- ④ 마몽드 ‘포어 클린’ 제품군. /아모레퍼시픽



한 보습을 선사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술력은 현재 ‘하이퍼 플로라’ 기술력으로 집약됐다. 이른바 아모레퍼시픽이 꽃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한 혁신 성과라 할 수 있다. 꽃에서 찾은 효능 성분과 스킨케어 부스팅 성분을 결합하여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스킨케어법이다.

2023년 10월부터 브랜드 재단장을 거치면서 하이퍼 플로라 기술력으로 아름다움의 경계를 깨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한다는 브랜드 정체성도 재확인했다. 브랜드 모델로 인기 아이돌 윈터를 선정하는 등 MZ세대와 함께 자신감 있는 여성상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는 ‘로즈 리퀴드 마스크’를 공개하는 등 마몽드는 자신감 있는

피부 비결을 공유하고 있다.

로즈 리퀴드 마스크의 경우 어떤 순간에도 화장이 잘 먹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강점이다. 로즈 펩타이드, 필링 성분인 PHA 등 차세대 소재를 함유하는 등 최신 기술력으로 개발됐다.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매끄럽고 균일한 피부 결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지난 10월 출시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마스크 3종도 일명 ‘화장먹(화장잘먹는)’ 필수 제품으로 최신 뷰티 유행을 이끌고 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 슬리핑 마스크, 볼 마스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수분 결광 관리에 특화된 제품들로 피부 상태와 선호 제형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어메이징 딥 민트차콜릿 팩 클렌저’, ‘어

메이징 딥 민트차콜릿 클렌징밤’ 등도 화장먹 피부를 만드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민트초에 AHA, PHA 부스팅 성분, 숯 성분을 추가해 피부 노폐물 관리 효과를 갖췄다.

꽃 연구로 ‘하이퍼플로라’ 기술 집약
화장먹 아이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노폐물 관리 ‘민트차콜릿 클렌징’ 등
뛰어난 제품력 바탕으로 유럽 진출도

어메이징 딥 민트차콜릿 팩 클렌저는 클렌징과 숯 스크럽, 팩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한 다중 기능성 제품이다. 부드러운 세안만으로도 팩을 한 듯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 결을 느낄 수 있다. 피부에 롤링 할수록 제형의 컬러가 변하는 등 재미 요소가 인기를 끈다.

어메이징 딥 민트차콜릿 클렌징밤은 민트 클렌징밤에 숯 성분과 고마주 필링 성분을 더한 것이다. 숯·클레이·고마주의 3중 배합이 이뤄져 제품 도포 후 롤링을 할수록 고마주가 부드럽게 밀려나온다.

물 없이 제조 가능한 모델링 팩도 브랜드 혁신을 보여주는 제품이다. 가루와 물을 섞어서 쓰는 일반적인 모델링 팩과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아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사용 가능한 것이 차별점이다.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마몽드는 올해 9월 말 유럽으로 진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북유럽 최대 뷰티 유통사인 ‘리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마몽드 유통망을 확보했다. 리코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스칸디나비아 Z세대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북유럽 진출로 아모레퍼시픽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오프라인 매장 33곳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5개 국가 온라인 채널에서 마몽드 제품 11종을 출시한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최근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에 입점했다. 런던 시내 주요 6개 매장을 포함한 영국 전역 47개 매장에서 먼저 선보이며 향후 매장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크리에이트 뉴뷰티’를 비전 슬로건으로 내세운 가운데, 마몽드가 전 세계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K뷰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경계를 넘는 다양한 시도로 다채롭고 새롭게 펼쳐질 마몽드의 미래를 지속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포트2 유력한 홍명보호 내달 월드컵조추첨 청신호 /사진 뉴시스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20일 개막...김효주·최혜진 등 출격

▲두산 유니폼 입은 박찬호 “동경하던 팀...‘허슬 두’ 되살리겠다”
▲북한, FIFA U-17 월드컵 8강 실패...일본에 승부차기 패배

▲‘영천 완산동 고분군’서 신라 수장급 돌무지덧널무덤 3기 확인
▲천연기념물 동물 죽음, 멸실→폐사로 용어 변경

SAMSUNG

Galaxy XR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Powered by
Android XR